

교과서연구

제 55호

2008. 12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박현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금융한, 김정호,
윤광원, 김종일, 홍후조,
권영민
- 편집협력위원(사·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희(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
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빌딩 4층
- 홈페이지: 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 * 표지 글씨: 신두영
- * 편집 디자인: (주)미래엔컬처그룹
국정교과서편집팀

● 권 두 언

2 _____ 살아 있는 역사 문화 교육의 현장, 박물관 / 최광식

● 특별 기획: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 4 _____ 한국의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개관 / 김만곤
- 11 _____ 지역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와 전망 / 문홍근
- 16 _____ 서울의 인정 도서 발행 현황 / 문종국
- 22 _____ 지역 교과서 개발 현황으로 본 개발 방향 모색 / 서원주
- 30 _____ 경상남도 인정 도서 발행 현황 / 이현석
- 35 _____ 지역 교과서의 외적 체제 현황과 문제점 / 윤광원

● 현장 교육

- 42 _____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렇게 계발하고 있다 / 이현영
- 46 _____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이인순

● 논 단

- 50 _____ 역사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 이찬희
- 54 _____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역사 교육으로 / 구난희

● 연 재

- 61 _____ 핀란드의 고등학교 교육 / 홍후조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68 _____ 요구 충돌의 교과서 개발 현장 / 이학범
- 72 _____ 교과서가 내게 준 또 다른 가르침 / 김광욱

● 단 상

- 75 _____ 어머니처럼 보고픈 어릴 적 교과서 / 김국빈

● 탐 방

- 78 _____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26) - 홍범준 / (주)좋은책신사고 대표

● 자 료

- 82 _____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작 및 심사평

- 93 _____ • 연구재단 소식
- 94 _____ • 교과서 개발 구입 안내
- 95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 96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살아 있는 역사 문화 교육의 현장, 박물관



글 |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박물관은 생생한 현장 체험 학습의 장이다.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실제 유물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지적 활동 속에서 그 자체가 교육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박물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박물관은 역사 문화 교육의 대중화와 정보화, 세계화, 특성화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 역사 문화의 대중화 현장

학교 교육에서는 역사를 비롯한 문화 교육의 대부분이 교과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의 경우 많은 내용을 통사적으로 다루다 보니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역사적 해석은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입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역사 지식과 역사 인식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는 고고학, 미술사, 민속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보았거나 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진귀한 유물, 특히 진품 유물들을 확인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방식에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 나아가 박물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2008년도에 모두 83개 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 역사 문화의 정보화 현장

우리나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모두 500여 개의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들은 소장품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학생들은 박물관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이용하여 숙제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박물관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박물관의 홈페이지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양방향으로 정보가 소통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보와 지식이 박물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 역사 문화의 국제화 현장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중국실, 일본실, 중앙아시아실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베트남의 삶과 문화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시를 통하여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역사 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의 유명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가져와 전시하는가 하면, 외국의 주요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기도 한다. 현재 외국 박물관에 한국실이 설치된 곳은 모두 17개국 58개처가 있다. 지금도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는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특별전의 경우 세계사 시간에 이름만 듣던 페르시아 관련 유물들을 실견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역사 문화 교육 특성화의 현장

현행 학교 교육에서 역사 교육은 대부분 중앙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지역사를 올바로 교육하는 데는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박물관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그와 관련된 주제를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주박물관은 신라의 역사와 문화, 김해박물관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 부여와 공주박물관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특화하여 전시하고 교육하고 있다. 지방의 국립박물관들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교육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학교와 교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 국립박물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박물관은 단지 유물을 보여주는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이며, 체험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담당하던 역사 문화 교육도 이제는 박물관과 연계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교와 박물관이 소통하여 역사 문화 교육이 균형을 잡고 좀 더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개관



글 | 김만곤 (남양주양지초등학교 교장)

이 教授要目에 들어 놓은 諸 單位는 標本的 學級을 標準삼아 普通的인 것으로 짜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各 地方에서는 特히 그 地方 兒童들에게 必要한 것과 그 高장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더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適當히 單位를 削除 補充하여도 좋다. 要컨대, 이 教授要目的 精神을 把握하여 各 地方에 꼭 맞는 教授를 하도록 힘쓰기 바란다.”

- 美 軍政廳 編修局, 1946. 9. 1., 「國民學校 社會生活科 教授要目」중 社會生活科 教授要目的 運用法 5. 各 地方의 特殊性을 考慮할 것(全文)

1. 왜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을 검토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1992년에 개정 고시된 제6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몇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그것은 교육부 자체로 - 교육부의 힘만으로 - 교육과정 개정을 계획하고 실행한 교육과정 개정이었으므로 교육과정 행정가들이 우리 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의도한 변화와 발전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교육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또, 종전의 교육과정 개정이 대체로 교육 내용의 변화와 발전을 의도한 교육과정이었다면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편성)과 운영 시스템까지 크게 변화시킨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즉, 제6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의미를 수용하고 그것을 편성해 보는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한 의도는, 우리 교육이 전국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 지식 주입식 수업에 매몰된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¹⁾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교육을 지양할 수 있는 길은 학교 교육이 교육과정 운영 자료일 뿐인 교과서에 집착하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학교 교육과정(school program)’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교육청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과정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 기관으로서의 당연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교육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 교육청에는 처음으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 생겨 연수와 회의를 거듭하면서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게 되었고, 각 학교에서는 종전의 ‘학교 경영 계획(또는 학교 교육 계획)’, 즉 교육 시책 구현 및 관리 중심의 문서와는 별도로, 또는 그 문서 대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시스템에 관한 이러한 변화는 1997년 말에 개정 고시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

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여 탄생한 교육과정이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①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②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③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④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⑤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던 만큼 국가 교육과정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설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이 그러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각 학교에서 개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체제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실천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 점은 뚜렷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할 일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은, 그러한 정책의 방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더욱 발전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제7차 교육과정기의 각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지침의 수준이 제6차 교육과정기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고 안타깝게도 학교별 교육과정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및 교육과정 지원 활동 등 교육과정 중심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 경영 관리 또는 교육 시책 중심으로 회귀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새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은 제6차 교육과정기를 기점으로 현장에 도입되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수준을 되풀이하는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제6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

회과 탐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별 편수 인력을 양성 확보하면서 국정 교과서로 편찬하고,²⁾ 이어서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그 인력을 기반으로 시·도별 지역 교과서를 인정 교과서로 편찬하게 한 이후 그 이상의 활동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³⁾ 시·도별로는 한자, 환경, 논술 등 재량 활동 영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정 도서를 승인해 주고 있으나, 인정 도서는 날로 늘어나는 그 종류에 비해 활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 또한 별다른 발전적 계기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II.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이 실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제6차, 제7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 행정은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으나, 교실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도한 교육과 실현된 교육을 최대한 접근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즉,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부가 국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교과서를 편찬, 공급하면 교사들은 그 교과서에 따라 마련하는 진도표와 시간표, 문제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므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과정에 관한 한 별도의 할 일이 없었다. 이에 비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교과서를 편찬, 공급하는 일을 담당한 것은 종전과 같으나,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편성 운영 지침을 정하고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며, 학교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청의 지침, 장학 자료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이래의 이에 관한 노력들이 교실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평가해 보면 '교육과정 행정이 과연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즉,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수업 사례로, 가장 탐구적 활동적이어야 할 과학과의 교육 과학기술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다.⁴⁾

☞ 산소를 발생시켜 성질 알아보기 (6-1-6 여러 가지 기체 2~3/9)

① 산소 발생시키기

○ 모둠별로 산소 발생 장치를 꾸밀 여러 가지 기구와 약품을 나누어 준다.

○ ‘실험 관찰’ 45쪽을 보면서 교사가 실험 기구를 하나씩 보여 주며 이름을 가르쳐 준다.

※ 유리 기구 및 약품을 취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안전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보안경을 착용하게 한다.

○ 교사는 ‘실험 관찰’ 45쪽에 나온 순서에 따라 장치 꾸미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산소 발생 장치 꾸미는 순서: ‘실험 관찰’ 45쪽〉

-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이산화망간을 1g 정도 넣고 물을 조금 부어 적신다.
- 고무마개에 유리관을 끼운 다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끼운다.
- 이 유리관과 깔때기를 핀치 클램프를 끼운 고무관으로 연결한다.

(이하 생략)

과학 교육에 관심이 깊은, 또는 그동안의 교사용 지도서 체제에 익숙해진 교사들은 이 사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의아해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첫 부분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을 나누어 준다.’ ‘~를 하나씩 보여 주며 이름을 가르쳐 준다.’ ‘~을 설명해 준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이산화망간을 1g 정도 넣고 물을 조금 부어 적신다.’로 이어지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의심스럽다.⁵⁾

이 지도안의 흐름을 따라가며 학생들이 경험할 것을 예상해 보면, 매우 미안한 말이지만 추석날 텔레비전 특집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마술사 앞에 둘러앉은 남녀 텔런트들이 그 마술사의 주문에 따라 무작위로 하나의 카드를 선택한 다음, 감쪽같은 그 마술의 신기함에 놀란 표정을 지어 주는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학생들은 이 수업의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며, ‘그래, 산소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될까. 이러한 수업에 ‘실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단편적 지식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업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의 목표들, 즉 ‘자연 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한다.’,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를 활용한다.’,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의문은 교육과정의 역할에까지 이어진다. 우리의 교과별 수업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찬, 공급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교육과정 운영 자료로서 수업의 기본이 되는 교과용 도서가 전국적으로 각 교과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유도하고 있다면,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심지어 학교별로 작성하는 학교

각 교육청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애써서 개발한 수많은 자료를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활용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저절로 잘 활용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데는 착안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또, 어차피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는 수업이라면 구태여 그러한 지침이나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문서에 따르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러한 노력들이 학습 지도와 무관한 도로(徒勞)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Ⅲ. 왜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가?

이처럼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부 정책의 부재, 각 지역의 교육 행정,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무관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PISA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최상위권이라는 데 만족하고 있으며, 만약 학생들이 공부하는 총 시간 수에 대비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은 하위권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수없이 되풀이된 비판, 즉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과서 내용 암기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려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 교육과정 정책과 행정을 중시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할 일을 이른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거의 그대로 제시해 놓고 있으나,⁶⁾ 그러한 사항들만으로는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을 발전시키거나 수업을 개선하는 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다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착안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평가를 하려면 학생 평가, 학교 평가, 교육 행정 기관 평가도 해야 하지만, 국가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가령 남양주시 오남읍의 초등학교 같은 예외로 맑은 오남천 냇물에 신기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도 다시 교과서에 제시된 생물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를 모른다. 지역 교육과정, 지역 교과서가 있다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지역 교육과정, 지역 교과서는 단지 초등학교 사회 4학년 1학기로 마감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 교육청들이 해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자료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게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 자료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서장만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각 교육청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애써서 개발한 수많은 자료를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활용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저절로 잘 활용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데는 착안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지역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하는 학자들은 많지만,
정작 지역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고,
따라서 학자들은 교육과정 현장의 발전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 보급의 수량을 보겠다면서 단순한 경쟁을 시켜 놓고 교육청 평가를 통해 경쟁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을 배정한다. 더구나, 그 평가의 척도에는 지역의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정책이 너무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대한 무관심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또는 발생할 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의 원천이 되고 있어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이 발전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 시 도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행정

시 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들은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구현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 때문인지도 모른다. 행정가들은 교원들의 교육과정 관련 연수회 인사말에서 ‘이 연수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언급을 하고 곧 돌아갈 뿐이며, 그것조차 다른 ‘바쁜 업무’ 때문에 교사들에게 진행을 맡기는 경우

도 있다(교육과정 행정은 언제나 그리 바쁜 일이 아니라는 점은 불행한 것일까, 다행한 일일까?).

우리의 교육행정은 아직도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일을 시 도나 지역 교육청에서 들고 일어설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부재(不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지역별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점이 된다.

다음은 「180개 지역 교육청 감사 행정 기능 폐지, ‘교육지원센터’로 전환」이라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문화일보, 2008. 4. 21, 3면).

“시 도 교육청 산하 180개 시 군 구 지역 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 바뀌고 감사 지도 기능 중심에서 지원 및 컨설팅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 군 구 지역 교육청의 종합 감사 권한과 행정 기능 등을 폐지하고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수업 지도, 학생 상담 등 학교 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학교 자율화 이행 계획 발표에서 현재 시 도 교육청의 하급 행정 기관에 머물러 있는 지역 교육청을 학교 자율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 지원 센터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수준별 수업 지도 방안 안내, 학생 상담 주선 같은 실질적인 장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이하 생략)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되어 온 이 과제가 이번에는 해결될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역 교육청을 실제적인 교육 지원 센터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대해 분명히 저항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는 지금도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종합 감사 권한과 행정 지도 기능이 있어야 능률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이 현장 지원 센터로 전환될 경우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정책은 수준 높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또한 분명하다.

(3)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행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지역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에는 관심이 없다. 겉으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겠지만, 마치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비해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경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하는 학자들은 많지만, 정작 지역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고, 따라서 학자들은 교육과정 현장의 발전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밝히기가 미안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학회’의 연간 세미나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지역 교육과정을 다루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⁷⁾

2008년 9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호주 커틴 대학교 교수 콜린 마쉬(Colin Marsh)는 오늘날 수많은 국가가 학교 교육 개혁에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표준 교육 및 필수 학습을 우려하고 있으며, 너무 제한적인 교사들의 전문 지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또 학교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는 3C, 즉 교육과정(Curriculum), 창의성(Creativity), 협동(Collaboration)이 기본적 요소라고 하면서 한국은 국가 교육과정에는 관심이 많은 나라지만, “덜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운다(Teach less,

learn more).”는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처럼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교육과정 운영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한국의 교사들도 각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은 이 견해가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문가들에게 실제적인 자극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IV.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발전은 지속 가능한가?

초등학교 사회과 4학년 1학기 1단원 ‘우리가 사는 시 도’는,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에는 ‘우리가 사는 시 도’인데도 행정 구역은 전라남도를 배우고, 관광은 강원도, 축적 비교는 인천, 지형은 충청남도, 산업은 제주도와 경상남도, 교통은 부산과 전라북도를 배웠으며, 서울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식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도 그렇게 출제했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그 단원을 시 도별로 각각 다르게 편집했다. 연구 개발 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강우철)에서 시 도 담당자들을 불러 연수를 시키면서 집필하게 했고, 그 담당자들은 ‘우리도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자부심으로 참여했다. 서울은 서울 내용으로, 부산은 부산 내용으로 꾸몄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담당 편집인이 그 48쪽을 인쇄하면서 “교과서가 이렇게 인쇄될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 단원의 편집과 인쇄가 우리 교과서 편찬사에서는 하나의 작은 ‘혁명’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 그 단원은 한 학기분으로 확대되었다. 획기적인 것은 교육과정부터 그렇게 구성되었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가 시 도별 편찬진을 구성하여 『사회과 탐구』 교과서와 지도서를 시 도별 국정 도서로 발행했다. 교육부 편수국 고위층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필자는 꿈은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로 일관하여 이루어 낸 일이었다.⁸⁾ 제7

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도서들을 시 도별 인정 도서로 발행하게 된 점만 달라졌지만 시 도별로 보면 그것 또한 큰 변화였다.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발전은 지속 가능하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학자들은 흔히 다른 나라들의 지역적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획일적인 우리나라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을 고수하는 범위에서 교과서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편협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어느 교사의 교실, 어느 학교, 어느 교육청에서 작지만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교육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혁명이 우리나라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연**

보기에 가장 전형적인 실험 학습 사례의 하나라고 판단되는 주제를 찾아보았을 뿐이므로, 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례를 과학과는 물론, 다른 교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6)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 도 교육청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포함해야 할 22개 사항(예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 군 구의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8개 사항(예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7) 이 글을 쓰는 동안에 받아 본 ‘한국교육과정학회’ 이메일에는 2008. 10. 25. 제2차 국가 교육과정 포럼의 주제가 ‘국가 교육과정 기준 연구 개발에서 총론과 각론의 관계 정립’이라고 되어 있다.
- 8) 교과서 원고 집필 과정에서는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 도별 담당자와 편찬진들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참여했고, 초고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자 드디어 교과서 집필, 편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필자는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로부터 일련의 그 연수를 시작했다.

- 1)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우리 교실은 국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도 좋을 만큼 국정이든 검정이든 정부가 생산, 공급하거나 인가하는 교과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나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데 치중한 교육이었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들이나 살펴보면 그만인 하나의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 2)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및 교사용 지도서는 1박 2일, 2박 3일 등 12회에 걸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면서 시 도별 국정 도서로 편찬되었고, 1996년 8월, 그 인력이 모여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및 시 도별 ‘초등교육과정연구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각 시 도에서 『사회과 탐구』 및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 도서로 편찬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그 경험과 인력이 축적,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3) 이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활동에 사용되는 시 도별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도 함께 편찬되었다.
- 4)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과학 6-1』(2007,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52~153쪽.
- 5) 이 사례는 특별한 관점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지역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와 전망

글 | 문홍근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I. 서론

지역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과 교육 자치 활성화와 함께 교육의 분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교육과정 적합성 측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지역화 내지 지역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제5차 교육과정에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강조됨으로써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를 마련하여 실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7차 교육과정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교육과정이 실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5~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3~4학년의 지역화 교재 개발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1학년 신입생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교재를 개발 보급한 점, 학교 재량 시간을 운영하도록 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정도이다.

제6~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분권화, 다양화 실천을 위해 교육과정 지역화가 일보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원 수급, 교원 연수, 자료 개발, 교육 시설 설비의 개선 등 후속 대책이 미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교육 중점의 체계적인 반영과 같은 진정한 지역 교육과정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에서 재구성하는 소극적 의미의 교육과정 지역화에 불과하여 교육 자치 정착이나 교육의 분권화, 다양화에 접근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위한 역량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 최근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른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의와 변화 과정을 재음미해 보고, 향후 지역 교육과정의 발전 과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II. 지역 수준 교육과정의 의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준거로 삼게 하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포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제시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군 구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적, 대강적, 요강적인 교육 내용 기준이라면, 시 도 단위 혹은 시 군 구 단위의 지역 특성과 실정, 필요, 요구 등이 반영된 국가 기준의 보완적이고 신장적인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 도가 국가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보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 그 지역의 자연 사회 문화 환경이나 산업, 역사, 전통, 발전 전망, 주민 의식 등은 중요한 검토 관점이 될 수 있다. 즉,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 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제시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군 구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이러한 근거는 각 시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전문적 기술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학의 핵심적인 업무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 의도와 교육 중점을 각 시 도의 지침에 제시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편성과 운영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지역이나 학교에 주어진 자율, 재량의 권한

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Ⅲ.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의 변화와 평가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국가 수준의 중앙 집권적 단일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효율화를 통한 교수 학습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지역화의 변화 과정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지침이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교육과정 지역화 정도와 실천 정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1) 제1차 교육과정과 지역화

문교부령 제44호(1995. 8. 1.)로 제정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는 ‘본 과정 운영상의 주의’에서 ‘모든 교육의 계획과 경영은 본 과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현하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에 알맞은 독자적인 연구와 창의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단지 유의점 수준에서 제시하였을 뿐이다.

(2) 제2차 교육과정과 지역화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로 개정 공포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의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지역성을 동한하고 획일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 기준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한 재구성을 강조하였다.

(3) 제3차 교육과정과 지역화

문교부령 제310호(1973. 2. 14.)로 개정 공포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에서는 ‘국가 시책 및 지역 사회 실정에 비추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 이외의 것을 첨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실정에 알맞은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지도의 실효를 거두도록 한다.’라고 제시하여 교육과정 지역화를 위한 지역화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4) 제4차 교육과정과 지역화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 12. 31.)로 개정 고시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 목표와 학생 수준에 맞는 단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여 교과용 도서의 재구성과 학교장 재량의 지역 단원 설정까지 지역화가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5) 제5차 교육과정과 지역화

문교부 고시 제87-9호(1987. 6. 30.)로 개정 고시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운영 지침’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교과용 도서 4학년 사회과 1단원을 지역 단원으로 제시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화 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6) 제6차 교육과정과 지역화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로 개정

고시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분권화, 지방화, 다양화에 부응하여 ‘편성 운영의 기본 지침’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편성 운영 지침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시·도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편성 운영 지침에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0개 항목을 제시하도록 구체화 하였다. 또, 편성 운영 지침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지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지역화 교재 개발을 시·도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한층 구체화되고, 지역 교육과정 개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7)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지역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 12. 30.)로 개정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 2. 28.)로 수정 고시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에서는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 운영 지침을 별도로 제시하고, 지역 수준 교육과정도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별 지침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등 22개 항목으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포함하여 할 내용을 제시하여, 이를 포함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제시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였다.

또, 지역 교육청에서도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기초로 ‘지역 특수성에 바탕한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등 8개 항목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

정 편성 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 장학 자료’를 작성하고 각급 학교에 제시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 학습 자료의 지역화와 다양화로 교육과정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지도 자료, 3, 4학년 사회과 탐구 지역화 교재를 시·도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 지역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제2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교육과정이 비로소 지역화의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단위를 시·도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지역 교과서 편찬의 효시를 가져 왔으며,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자율화를 촉진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개선하여 학습자가 지역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하였다. 또, 사회과 지역화 교재(지역 교과서)를 지역에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분권형 지역 교육과정을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지침 작성 시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협의의 교육과정 지역화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에서 광의의 교육과정 지역화와 지역화 교재 개발 등 지역 교육과정으로 변화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듯이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및 실천 중심 장학 자료에 포

함해야 하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지나친 명세화는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약화시켜 교육과정 지역화와 지역 교육과정 개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IV. 교육과정 지역화의 과제와 발전 방향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상급 기관의 법적 권한 이양이나 자원, 기술의 지원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화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교육 자치 단체나 단위 학교의 조직 구조, 인적·물적 자원, 문화·풍토, 시간적·요인, 예산 지원 등의 다양한 구조적·요인들이 빚어 내는 상호 작용의 산물이므로, 지역화를 추진하는 기관들이 이들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고 상호 관련지을 수 있는 역량을 지닐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전문성 경험 부족, 기관장의 교육과정 지도성 미흡, 시·도 교육청의 재량권 한계, 교육 개혁 추진 사업에 따른 본질 훼손, 부적절한 작성 시기나 전시 성과 위주의 문서 기능, 지침의 활용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문제 진단에 기초하여 지역 교육과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교육청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침에 의한 단순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아니라, 지역 인재 및 지역 발전의 원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중앙 정부의 법령상의 권한 배분과 더불어 시·도 교육청이 교육과정 지역화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시·도 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서 교육감이나 전문직, 교원과 함께 일반 행정직, 시민 단체, 학부모 등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체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지역 교육과정

의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시·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지역화를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소재나 내용의 지역화에서, 지역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지역 교육과정 개발로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와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역화와 관련된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지역화 추진 절차를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거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존에 해오던 방법만 답습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교육과정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표방함은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교육 경험, 즉 학습 경험의 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역과 학교가 단순히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교육적인 경험을 구성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 지향적 활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역화 과제가 해결된다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효율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삶의 의미를 담아 내는 미래 지향적이고 성공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교육과정 지역화의 내실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제시 → 시·도 교육청의 편성 운영 지침 작성 제시 →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교실에서의 실천적 적용’이라는 체계적 지역화를 지향하여 문서상으로는 지역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왔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지역화가 실질적으로는 실천된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탈 규격화, 탈 집중화, 탈 중앙 집권화 시대라고 볼 때, 더 이상 교육과정 지역화를 문서상으로만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힘을 모아 지역 교육과정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미래의 교육을 보는 거울’이라고 한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핵심 역량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 창출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 문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지역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선진화된 지역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광주: 한울사.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1999). 초·중등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총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대현·이은화(1999). ‘교육과정 지역화의 과제와 전망’. The Journal College of Education, Vol. 37, 부산대학교.
- 김용찬(2000). ‘21세기와 교육과정 지역화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33호.
- 한국교육과정연구회(1997). 지역교육과정연구(제2호). 충남: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탐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연구 자료 ORM 2008-14)

서울의 인정 도서 발행 현황

글 | 문종국 (서울잠실초등학교 교감)



I. 인정 도서의 필요성

“만화책처럼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는 없나요?”, “참고서나 인터넷을 복사하지 않아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나 지역에 맞는 교과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면담 조사하면서 나온 의견들이다.

필자 또한 수년 간 교과용 도서 집필 및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의견이다. 일반적인 교과서 발행 제도인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 중에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초등의 경우 지금까지 국정 교과서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에 따라, 특히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전 교과가 국정 교과서 일색인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학생들이나 강원도의 산촌 학생들, 경상남도의 농촌 마을, 전라남도의 섬마을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고, 선생님들에게는 교수 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이지만 재미없고 읽히지 않은 책이 교과서이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다행히 제6차 교육과정부터 일부 지역화 교과서가 도입되었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교과서 제도가 일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지역을 고려하기보다는 전국 단위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가 인정 도서

제도에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 도서라 함은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규정)¹⁾

즉, 인정 도서 제도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서로 인정한 후에 목록을 정하여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 도서 제도의 취지는 교육 자료를 다양화하고, 교육 자료의 보완,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와 신설 학과의 교재 보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재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인정 도서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의 재량 활동에 사용할 교재, 중학교의 기타 선택 교과 교재,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재, 국정 검정 도서가 없는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재,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 교과목 교재, 실기 실습 등으로 교과서 개발 계획이 없는 전문 교재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없는 경우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 등 교과서 또는 지도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 입문기 교재인 ‘우리들은 1학년’,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교재(3학년 ‘우리 고장의 생활’, 4학년 ‘우리 지역의 생활’) 지역화 교재 등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지침).²⁾

여러 가지 교과서 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국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가 단일화 되는 반면, 국민 공통의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위한 공통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검 인정 교과서는 다양한

인정 도서 제도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서로 인정한 후에 목록을 정하여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 도서 제도의 취지는 교육 자료를 다양화하고,
교육 자료의 보완,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와
신설 학과의 교재 보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재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의 발행이 가능한 반면, 국가나 시·도 교육청의 간접적인 간섭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정 도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정제와는 달리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금용한)

이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정 도서의 개발 절차와 일반적인 발행의 현황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정 도서 심의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지역화 교과서의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개발하여 서울특별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정 도서인 지역화 교과서의 개발·사용 현황과 바람직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서울의 인정 도서 개발 절차와 개발 현황

(1) 인정 절차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비슷하겠지만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인정권자에게 인정 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는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고, 2차 심사 후 3차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 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교재에 대하여는 1차 및 2차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 후 심의본 제출은 사용 학기 시작 2월 전까지 인정도서심의회로 한다.

또,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경우 학교별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신청한다. 이

경우 1, 2차 심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되,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정 도서의 심의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인정권자에게 인정 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14조 3항에 의한 인정 도서(심의 없는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별 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인정 도서의 필요성, 인정 도서를 사용할 지역 또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인정 도서로서의 적합성 및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정 도서로 사용할 도서, 지역 또는 학교를 결정한다. 신청 절차는 초·중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초·중학교장 → 교육장 경우 → 교육감, 고등학교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고등학교장 → 교육감,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장 → 교육감의 절차를 거쳐 심의 심정을 한다.

(2) 심사 기준

1차 심사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통 기준은 국가 정책, 교육 목적, 교육 내용상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공정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② 특정 정당 종교, 국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선전 옹호 우대, 비방 왜곡 등의

내용이 있는가? ③ 각종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가?(헌법 정신과의 일치), ④ 교육법,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적 및 목표에 위배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교육 목적과의 일치) ⑤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독자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가?(내용 구성의 창의성) ⑥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내용의 보편 타당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 기준은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 사항을 평가하는데, ① 교육과정과의 균형성, ② 이론적 배경, ③ 학습 목표와 내용의 관련성, ④ 학습 분량의 적정성, ⑤ 학습 수준의 적정성, ⑥ 학습 내용의 시의성, ⑦ 학습의 자율성, ⑧ 타 교과와의 연계성, ⑨ 구성 체제의 적정성, ⑩ 표현 표기의 적정성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교과 심사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촉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교과 심사 기준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심사할 수 있다. 교과 심사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전에 위촉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교과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2차 심사 기준은 1차 심사 결과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와 표현 표기 및 편찬 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기타 추가 수정 사항 등으로 작성한다.

1차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은 주로 5명으로 구성되고, 심사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한다. 심사위원은 각자 심사 기준과 심사 유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인정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위원은 개별적으로 심사 유의 사항에 따라 공통 기준은 위반 사항이 '있음', '없음'으로, 교과 기준은 심사표에 평점으로 기재하여 1차 수정 검토서와 함께 제출한다. 심사 집계표와 1차 수정 검토서를 제출받은 후 심사위원장의 적격 판정을 받은 도서에 한하여 수정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1차 수정 검토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수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수정 보완의 범위

는 저작자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공통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심사위원 과반수의 개별 평점이 60/100점 이상이고, 개별 평점을 합산한 평균 득점이 60/100점 이상인 도서에 한하여 적격 판정을 한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위원 중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는다. 1차 심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1차 심사 결과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현 표기 및 편찬 체제 등에 대한 적합성 심사 결과 9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부'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3차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인정 도서 심의를 한다.

(3) 인정 도서의 사용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인정 도서로 인정한 도서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에 따라 그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 그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정 제17조 제1항) 다만, 타 시 도 교육감이 승인한 인정 도서에 대하여는 당해 도서의 적합성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은 인정 도서는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없다.(규정 제17조 제2항) 학교가 인정 도서를 선정 할 때는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 교과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정 도서 개발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개발되어 심의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인정 도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의 있는 인정 도서는 초 중 고등 학생용의 컴퓨터, 한자, 경제, 환경, 통일, 독서, 논술, 안전 생활, 외국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902권이 교육감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우리들은 1학년' 외 424종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개발되어
 심의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심의 있는 인정 도서는
 초 중 고등 학생용의 컴퓨터, 한자, 경제, 환경, 통일, 독서, 논술, 안전 생활, 외국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902권이 교육감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고,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우리들은 1학년’ 외 424종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초등학교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과 4학년의 ‘서울의 생활’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단위에서 개발되어 서울특별시 전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들은 1학년’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되어 함께 보급, 활용되고 있다. 또, 초등학교 3학년의 지역화 교과서인 ‘우리 고장의 생활’이 11개 교육청 단위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종교’ 외 67종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보건’ 외 408종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컴퓨터 구조’ 등 컴퓨터 관련 교과 14책, ‘사진 감상과 비평’ 등 예체능 교과 44책, ‘국제법’ 등 국제 전문 교과 25책 등 83개 과목의 교과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5) 학교에서의 인정 도서 활용 현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재량 활동 시간에 학교 단위, 학년 단위로 인정 도서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학교가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계열에 따라 인정 도서 심의 없는 인정 도서를 교과 교재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단위로 개발된 지역화 교과서의 경우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과 4학년의 ‘서울의 생활’은 서울특별시 전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3학년용 지역화 교과서인 ‘우리 고장의 생활’은 지역 교육청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25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 고장의 생활’은 2, 3개 자치구에서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Ⅲ. 서울의 지역화 교과서 개발과 활용 현황

(1) 개발과 활용 현황

다른 시 도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지역화 교과서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초등학교 1학년 입문기용인 ‘우리들은 1학년’ 1책, 3학년에서 1, 2학기에 사용하는 ‘우리 고장의 생활’ 11책(11개 지역 교육청 발행), 4학년 1학기 ‘서울의 생활’ 1책 등 3종 13책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 기간에는 모든 지역화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경우 국정 교과서보다는 인정 도서를 주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기간에는 ‘우리 고장의 생활’과 ‘서울의 생활’은 ‘사회과 탐구’로서의 성격을 살려 개발되었고, 교사용 지도서도 별도로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도 국정 교과서인 ‘사회’를 주 교과서로 사용하고, 지역화 교과서의 경우 사회과 탐구로서의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교과서는 ‘서울의 생활’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교사들도 있는 현실이다.³⁾

지역화 교과서의 주요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3학년의 ‘우리 고장의 생활’은 지역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학년 1, 2학기 합본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 주요 구성 내용은 국정 교과서인 3학년 ‘사회’의 단원에 따라, 1학기는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 2단원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3단원 고장의 중심지 등 3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 아래 2개 켄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기의 경우 1단원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추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정 도서, 지역화 도서는 전국 단위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연계성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지역의 환경을 잘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되어야 하겠다. 특히, 또다른 교과용 도서나 참고 도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수 학습 자료 포함된 교과서로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공통된 희망이었다.

고장 생활의 변화는 지역화하지 않고, 2단원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 3단원 살기 좋은 우리 고장만 지역화하여 구성하고 있다.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로 개발된 ‘서울의 생활’은 1단원 서울의 모습에는, ① 지도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 ② 서울의 자연 환경과 생활, ③ 달라진 서울의 모습 등 3개의 소단원, 2단원 발전하는 서울 경제에는 ① 서울의 자원과 생산 활동, ② 서로 돕는 경제 생활 등 2개의 소단원, 3단원 새로워지는 우리 서울에는 ① 지방 자치와 주민 생활, ② 서울의 여러 문제와 해결 노력, ③ 우리 서울의 앞날 등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역화 교과서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 교과서인 ‘서울의 생활’에 대한 활용 현황과 장단점 그리고 새 교육과정에 의한 지역화 교과서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면접과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인 ‘사회’ 교과서와 ‘서울의 생활’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사회’ 교과서보다는 ‘서울의 생활’이 더 쉽고 재미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약 3배에 달하였다. 쉽고 재미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주로 ‘우리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 재미있고 공부하기 쉽다.’ 또, ‘교과서에 어려운 낱말 풀이가 있어 편하고, ‘서울에 대한 그래프, 표, 신문 기사,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지역화 교과서의 내용이 서울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나 사진 등이 많아 재미있게 교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매년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심도 있는 개정을 통한 시대 상황에 맞는 자료 제공 등을 지역화 교과서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사회’ 교과서와 함께 ‘서울의 생활’을 공부하여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교사들의 경우 사회 교과서와 지역화 교과서의 내용을 연계시켜 지도하기가 힘들다는 점, 사회과 교과서와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점, 그리고 교사가 서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화된 설명이나 다양한 사진 자료 등 보조 자료가 필요하여 참고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인데 교사용 자료가 따로 없다는 점 등을 지역화 교과서의 단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지역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IV. 학생, 교사들이 바라는 지역화 교과서

재미있고 유익한 교과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읽혀지고 활용되어지는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일까?

먼저, 학생들이 바라는 지역화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으며 알기 쉽게 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화, 그림, 사진, 설명 등을 더 많이 추가하고, 알기 쉬운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실리고, 동영상이나 관련 홈페이지 주소를 함께 실어 생동감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학 익힘책이나 생활의 길잡이, 실험 관찰처럼 백지도나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 정리하는 형태의 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다.

한편, 교사들의 생각은 '사회' 교과서와 중복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 학습 방법 안내와 함께 제시되고, 서울에 관해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하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및 보조 자료가 많은 교과서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았다. 그리고 보조 자료와 워크북 형식의 편찬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았다.

V. 새로운 지역화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언

새로운 지역화 교과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희망과 교과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지역화 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바람직한 교과용 도서의 방향 또한 다르지 않겠지만, 특히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추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정 도서, 지역화 도서는 전국 단위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연계성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지역의 환경을 잘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되어야 하겠다. 특히, 또다른 교과용 도서나 참고 도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수 학습 자료 포함된 교과서로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공통된 희망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와 형태가 어우러진 교과서로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현장 교수 활동을 돕기 위해 주제별 핵심 개념과 사례가 있는 교과서, 일관된 구성 체계를 갖춘 교과서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 제6호, 제40조.
-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도서 심의 지침.
- 3) 이하의 의견은 필자 등이 지역화 교과서 개발을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상대로 면접 및 설문 조사한 내용이다.

참고 문헌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 429호).
- 금융한(2008), 한국의 교과서 제도와 그 개선 방향, 교과서 연구 제53호.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2008), 우리 고장의 생활(강동구 송파구).
-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서울의 생활.
-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서울 인정 도서 목록(2000~2008 상반기).
-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심의 없는 인정 도서 과목명.
-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인정 도서 업무 처리 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 장미현(2008), 사회 교과서 어떻게 쓰면 잘했다고 할까, 교과서 연구 제53호.
- 한춘희(2008),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 개발과 교육과정 개정, 초등교육과정연구 제13호.

지역 교과서 개발 현황으로 본 개발 방향 모색

글 | 서원주 (부산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I. 서 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 교과서도 단위 지역 교육청별로 새롭게 개발되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교육과정 철학 및 운영 변화의 추이에 맞추어 볼 때 해당 지역의 성격에 절실한 지역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 실정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요한 교육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활성화 정책에 의해 지금까지 주기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왔던 교육과정이 부분 수시 개정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검정 또는 국정 교과서의 경우도 보다 자주 개편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형편은 사회 교과서 등 지역 교과서도 같아서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시로 개편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하게 되었다.¹⁾ 다음에서는 이러한 지역 교과서 개편과 수정 보완 활동 중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 교과서의 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지역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지역 교과서 개발 현황

지역 교과서의 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철학과 운영에 따라 체제 및 내용 등이 변해 왔다. 이러한 점은 지역 교과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종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 교

과서의 종속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교과서 개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에 따른 개발 현황

교육과정의 지역화라 함은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결정 권한을 지역, 즉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 현장에서 담당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소극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 일정한 틀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소극적 의미를 띠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지역화는 과거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지방 분권화를 지향하여 자율 재량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4학년 1학기 교과서인 '사회'는 전국 공용으로 편찬함으로써 교육과정 기준에 의한 개념 체계의 전국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과 탐구'는 '지역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시·도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책을 편찬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역화, 교육의 지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199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의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해당 교육 자치 관할 지역에 관한 지역 사회의 생활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교육과정 지역화는
과거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는 ‘사회과 탐구’ 교과서의 제목이 ‘서울의 생활’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산의 생활’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 취지가 반영된 지역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과 4학년 1학기 지역 교과서인 ‘사회과 탐구’는 전면적인 개편

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2008년에는 실험본을 개발하여 2009년 실험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즉, 이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지역 교과서’인 ‘사회과 탐구’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4학년 적용 시기인 201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교육과정기별 ‘사회과 탐구’ 개발 현황

교육과정기	사회과 지역 교과서인 ‘사회과 탐구’ 개발 현황
제5차 교육과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 편찬은 이화여자대학교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에 위탁함. · 1888년에 ‘사회 4-1’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지역 단원은 각 시·도 대표 선정해 집필함. · 1991년 3월 1일 사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편찬 · 1991년 3월 1일에는 부교재로 ‘사회과 탐구’ 편찬, 1단원은 지역에서 집필
제6차 교육과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11월 15일 지역 교과서 개발 계획이 시·도 교육청으로 통보 · 1993년 12월 말 시·도별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구성 · 1994년 2월~1996년 3월(2년 간) 각 시·도 지역 교과서 탄생
제7차 교육과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4-1’은 전국 공용 개발, 주 교과서 역할 회복 · 지역 교과서인 ‘사회과 탐구’ 4-1은 시·도 인정 도서로, 16책 개발되어 보조 교과서 역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의 개발 현황을 예로 들면,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1999년 3월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 초등 인정 도서 ‘부산의 생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2년 간에 걸쳐 내용 편찬과 수정을 거듭한 결과, 2001년 3월 1일 초판 인쇄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매년 수정, 보완되어 현재까지 현장에 보급,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교과서 개발 관행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적용되어 2008년 3월부터 전면 개편된 실험본 지역 교과서 개발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실험본은 2009년 3월부터 약 6개월 간 실험, 적용한 후에 2010년부터 ‘부산의 생활’이라는 교과서로 현장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2)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개발 현황

사회과 지역 교과서는 내용의 구성면에서 교육과정기별로 점진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기별 지역 교과서의 개발 현황과 내용의 구성 형식 등을 알아보면 【표 2】와 같다.

지역 교과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여 지역 주민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표 2】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역할

교육과정	사회 4-1	사회과 탐구 4-1	교사용 지도서 4-1
제5차 교육과정기	· 1단원을 시 도별 편집(15책 개발) · '사회 4-1이 전국 공용으로 개발됨(1책)	· 1단원 지역화 단원으로 편집(15책 개발) · 시 도별 지역 교과서로 개발(16책)	· 1단원 지역화 단원으로 편집(15책 개발) · 전국 공용인 교사용 지도서(1책)
제6차 교육과정기	· 사회 교과서가 시 도별 '사회과 탐구'의 보조 교과서 역할	· 1종 도서로 개발(저작권: 교육부) · 주 교과서 역할	· 시 도별 인정 도서로서의 지도서 개발(16책)
제7차 교육과정기	· 전국 공용 교과서로 개발(1책) · 주 교과서 역할 회복	· 시 도별 인정 도서로 개발(16책) · 보조 교과서 역할	· 전국 공용 지도서 개발(1책) · 필요시 시 도별 지역화 자료 개발 권장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자료로서, 교육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알맞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그 내용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인 학습 자료의 기능을 다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특징은 지역 교과서 개발에도 적용되어 지역 교과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여 지역 주민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가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주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역 교과서는 보조 교과

서로 교과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 제시와 활동 자료집으로서의 역할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역화 학습 등의 부가적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교과서는 지역의 환경과 지역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활동 중심의 학습 과정과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학습자들의 사회과에 대한 흥미와 참여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개체 역할로서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Ⅲ. 지역 교과서 개발의 실제

(1) 개발 및 편찬 기관

지역 교과서의 개발은 시 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편찬은 시 도 교육청, 과학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등 시 도마다 다양하게 운영한다. 각 시 도의 편찬 기

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 개발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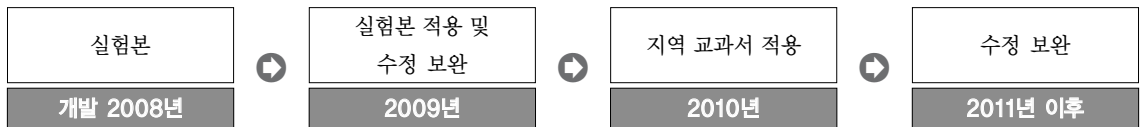
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연구원(교육연구정보원) 등 시·도 교육청 직속 연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 교과서 편찬 기관의 예

시·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대전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보연구원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경상북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원
경상남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2) 지역 교과서 개발 과정

【그림 1】 지역 교과서 개발 과정



2008년에 개발하는 지역 교과서는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 즉, 2008년에는 실험본을 개발하며, 2009년에는 실험본의 실험 적용, 그리고 2010년에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지역 교과서가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

(3) 개발 절차

지역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교육과정의 변화의 폭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되는가 하면, 변화의 폭이

적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기도 한다. 또,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의 수정·보완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변화된 기초 자료에 따라 통계 자료의 보완, 현장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활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지역 교과서를 개발할 때의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모형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지역 교과서 개발 절차의 예



이러한 절차에 따른 개발 일정을 제시하면 【표 4】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와 같다. 이 개발 일정 역시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표 4】 지역 교과서 개발 일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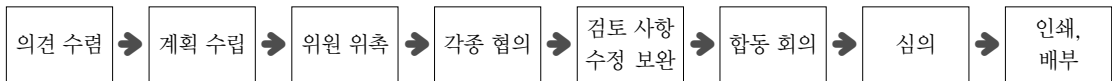
연번	시기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담당
1	2월	· 사전 협의회	· 개발 계획 수립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자문위원
2	3월	· 개발 계획 수립	· 지역 교과서 개발 계획 수립	담당자
3		· 위원 선정	· 지역청별 추천, 기존 집필자 동의	담당자
4	4월	· 집필 협의	·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 방향 논의 · 집필 세목, 단원 구성안 연구 협의	집필, 연구위원
5	5월	· 검토 협의	· 집필 세목 검토 · 집필 세목 심의, 확정	연구, 집필, 검토위원
6	5월	· 집필 협의	· 샘플 의견 수렴 및 샘플 확정 · 개별 집필 작업 및 집필위원 협의	연구, 집필위원
7	5월	· 검토 협의	· 1차시 개별 집필 내용 검토 및 협의	집필, 검토위원
8	6월	· 합동 회의	· 집필 및 사진 삽화 작가 합동 회의 · 연수, 워크숍 통한 전문성 신장	집필, 사진, 삽화위원
9	7월	· 검토 협의	· 초안 검토	검토위원
10	8월	· 집중 개발	·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 보완 · 집필 영역 집중 개발	집필위원
11	7월~9월	· 사진 삽화 작업	· 사진, 삽화위원의 사진, 삽화 작업	사진, 삽화위원
12	9월	· 수정안 검토	· 수정안 검토	자문, 검토위원
13	9월	· 1차 교정	· 편집 및 1차 교정	집필위원
14	9월	· 집필 회의	· 최종본 완성을 위한 집필위원 회의	연구, 집필위원
15	10월	· 공개 입찰	· 인쇄소 공개 입찰	담당자, 총무과
16	10월	· 최종본 완성	· 내용 및 사진 삽화 수정 보완 · 심의 전 최종본 완성	집필, 사진, 삽화위원
17	10월	· 인쇄 의뢰	· 심의본 인쇄 의뢰	담당자
18	10월	· 심의본 심의	· 심의본 심의 · 심의 의견 정리 ·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작업	담당자 연구, 집필위원
19	10월	· 2차 교정	· 편집 및 2차 교정	연구, 집필위원
20	10월	· 인쇄 의뢰	· 인쇄 부수 확정, 인쇄 의뢰	담당자
21	12월	· 배부	· 배부, 인수증 확인	담당자
22	2월	· 정산	· 교과서 정산	담당자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의 수정 보완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변화된 기초 자료에 따라 통계 자료의 보완,
현장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활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교과서 실험본이 개발되어 현장 적용된 후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정 보완 과정은 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편수 담당자가 직권으로 수정, 보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구성된 집필위원을 그대로 수정 보완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든, 지역 교과서는 개발하는 단계에 비해 위원의 선정과 지역 교과서 내용 개선에 수고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지역 교과서 수정 보완 절차의 예



【표 5】 지역 교과서 수정 보완 일정의 예

연번	일정	추진 내용	담당
1	3월	의견 수렴, 전체 계획 수립, 검토위원 위촉	담당자
2	4월	검토 협의	연구위원, 검토위원
3	4월~5월	현장 검토 및 수정 보완 사항 추출	현장 검토위원
4	5월	집필, 검토 협의	집필위원, 검토위원
5	5월~6월	검토 사항 수정 보완	집필위원
6	6월	합동 회의	자문, 집필, 검토위원
7	6월	수정본 교과서 심의	담당자
8	7월	교과서 제작 입찰	담당자
9	12월	교과서 완성 및 보급	담당자
10	2월	교과서 정산	담당자

(4) 개발 위원 구성

지역 교과서 집필, 연구 검토위원의 선정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도서 개발 경험, 4학년 지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다. 【표 6】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집필, 연구,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과 각 위원들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표 6】 지역 교과서 개발 위원 구성의 예

구분	위원	역할
자문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교수, 전문직	교과서 개정 방향 지도
연구위원	전문직, 관리직, 교수, 시청 관계자	교과서 개정 방향 및 체제, 내용 조직 연구, 집필 세목 논의
집필위원	해당 분야 전문 교사	지역 교과서 집필 지역 교과서 심의 검토
검토위원	해당 교과 전문가, 우수 현장 교사	지역 교과서 검토
현장검토위원	해당 학년 현장 교사	사진, 삽화 작업
사진 삽화위원	우수 현장 교사, 화가, 삽화가, 기자, 지도 제작 전문가, 박물관 직원 등	

(5) 지역화 교과서 명칭 부여

지역화 교과서의 명칭은 ‘(지명)의 생활’ 형태로 부여하나, 이러한 명칭 부여 방법이 고정적은 아니며 조

금씩 바꾸어 사용하기도 한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 와서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달라진 시 도는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이 있다.

【표 7】 지역 교과서 명칭 변경의 예

시 도	제6차 지역 교과서 명칭	제7차 지역 교과서 명칭
대전광역시	자랑스러운 대전	대전의 생활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생활	전라북도 생활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생활	전라남도 생활
경상북도	우리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생활

그 밖의 시 도는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모두 일관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은 ‘서울의 생활’, 부산은 ‘부산의 생활’, 대구는 ‘대구 생활’, 인천은 ‘인천의 생활’, 울산은 ‘울산의 생활’, 경기도는 ‘경기도의 생활’, 강원도는 ‘살기 좋은 강원도’, 충청북도는 ‘살기 좋은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의 생활’, 경상남도는 ‘우리 경상남도’,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도’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과명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심의 과정

인정 도서가 심사되기 전에 검토위원들은 검토 과정을 꼼꼼히 거친다. 검토위원들은 5~10명 정도로 구

성되며, 지역청별로 검토위원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집필위원들이 집필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초안부터 시작해서 집필 원고가 작성됨에 따라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진행한다.

검토위원의 검토가 끝난 후에는 현장 검토위원 추천을 지역청별로 다시 추천받아 현장 검토를 거치게 된다. 현장 검토위원은 지역 교과서를 사용할 4학년 담임을 담당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 20~30명 정도의 많은 검토위원이 교과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검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교과서의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심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IV. 지역 교과서 개발 방향


위의 지역 교과서 개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교과서의 개발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내적 체제 개선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한 ‘방법으로의 지역화’ 보다는 ‘내용으로의 지역화’ 교과서를 지향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내용으로의 지역화’ 할 부분을 기본 활동으로 설정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심화 보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으로서의 지역화’ 하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필위원 구성의 개방성이다. 지금까지는 지역 교과서의 집필위원이 구성되면 집필자가 바뀌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면 개편과 보완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집필진의 교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현재 단원과 제재별로 되어 있는 책임 집필 시스템을 공동 책임 집필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집필진을 구성하거나 다른 집필진의 합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견 수렴 방법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지역 교과서가 개발되면 현장에서 한 학기를 활용한 4학년 담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 왔다. 하지만, 상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고, 지역 교과서 카페 등을 통해 활발하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정 보완의 범위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금까지 수정 방법은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자 탈자, 문장의 오류, 사회적 사실, 사진 도표 통계 자료 등 변화된 내용을 중점으로 교체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해 왔다. 하지만, 지역 교과서의 수시 수정,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보의 변화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변화된 정보를 과감히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 집필진과의 상시 협의 체제 구성이다. 사회과 교과서 집필진과 각 시·도의 지역 교과서 개발팀 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상시 협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현실적인 자료의 수집과 개발 및 지역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 1)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에 따른 교과서 편찬이 시작되면서 ‘우리들은 1학년’도 ‘지역 교과서’로 불리고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과 탐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경상남도 인정 도서 발행 현황

글 | 이현석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I. 들어가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 도서’ 외에도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인정도서예관한교육규칙’을 두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획일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교육 내용에 담아야 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상기한 규칙에는 인정 도서 승인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두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알맞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정 도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 내용의 진술, 편찬 체제면에서 적합성과 교육적 의의를 살펴 적격 심의를 하고 있다. 상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상남도교육감 인정 도서 발행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II. 경상남도 인정 도서 개발 심의 보급 정책

(1) 방침

- 1) 학교는 대통령령 제17634호 교과용도서예관한 규정 개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 2) 도교육청은 인정 도서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3) 도교육청은 인정 도서의 질을 높이도록 인정 도서 심의에 노력한다.
- 4) 인정 도서 구입은 학교 자율로 하며, 도교육청은 인정 도서 구입을 적극 돕도록 한다.

(2) 인정 도서 개발과 승인

- 1) 도교육청은 인정 도서에 관한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요구와 필요를 조사하여 개발 영역을 안내하도록 한다.
- 2) 인정 도서 개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 주체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준다. 인정 도서를 개발하는 교원은 개인, 교과교육연구회, 자생 연구단체 등으로 인정도서개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인정 도서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 4)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인정 도서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 지도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5) 개발한 인정 도서는 경상남도인정도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교육감 인정 도서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 6) 경상남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인정 도서의 판권과 발행권은 개발자에 있다.
- 7) 인정 도서 승인에 관한 다른 사항은 ‘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심의교육규칙’에 따른다.

(3) 인정 도서 보급

- 1)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감 승인 인정 도서 목록을 배포한다.
- 2) 학교는 인정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학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인정 도서를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채택한다. 이때 타 시 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인정 도서도 경상남도교육감 승인 인정 도서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 3) 학교는 채택한 인정 도서를 학교비로 구입하여 학생에게 무상 보급한다.
- 4) 학교는 필요한 경우 인정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지도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지도 자료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작되어야 한다.

(4) 지도 자료 승인 업무

- 1) 교사가 사용할 지도안이나 지도 프로그램, 학생이 사용할 학습장(교과서가 아님.) 등의 지도 자료를 학교장이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
- 2) 지도 자료는 승인받은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3) 승인 서류의 내용
 - 가) 신청서: 공문
 - 나) 편성한 교육과정
 - 다) 지도 자료(교사용 지도 자료, 차시별 지도안, 학생용 학습장 등)
- 4) 교육장은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기준에 합격되면 승인한다.
- 5) 검토위원 구성, 검토 기준 등 업무 처리 계획은 ‘도 인정 도서 업무 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하여 추진한다.

- 6) 지도 자료 승인 결과 보고: 승인 후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7) 승인받은 자료를 신청한 최초 학교에서 그 자료를 계속 사용할 때에는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8) 지도 자료의 승인 신청

가) 승인 신청권자: 교장

나) 승인권자: 교육장

다) 승인 신청 시기: 도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라) 승인 절차

(1) 지도 자료의 확정: 신청권자는 지도 자료의 적합성 등을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2) 승인 신청: 신청권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사용 승인 신청서 1부

○ 편성한 교육과정 1부

○ 사용할 지도 자료 1부

마) 지도 자료의 심사

(1) 심사 계획 수립: 심사 일정 및 장소, 심사 기준 등 심사 계획을 세운다.

(2) 심사위원의 구성: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자료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위원장: 교육과장

(4) 위원: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등 적의하게 구성

(5) 지역교육장은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심사의 실시 및 판정 방법: 지도 자료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필수 기준이 1개 항목이라도 ‘있다’로 판정되면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내용 기준은 심사위원의 평점을 합산한 결과 평균 60/100 이상이며 4점 이하인 항목이 없을 때 ‘적격’ 그 미만인 것은 ‘부적격’으로 한다.

바) 심사 결과 통지

- (1) 승인권자는 심사 결과 ‘적격’, ‘부적격’ 판정 결과를 사용 학기 1개월 전까지 신청권자에게 통지한다.
- (2)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신청하고, 5일 이내에 재심사한다.
- (3) 승인받은 자료를 신청한 최초 학교에서 그 자료를 계속 사용할 때에는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 대장 관리: 지역교육장은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재량 활동 교과용 도서, 지도 자료 사용 상

황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Ⅲ. 경상남도 인정 도서 신청 및 인정 업무 처리 흐름도

경상남도교육청은 인정 도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정 도서의 심의, 인정, 심사, 사용 인정에 대한 업무를 다음 표와 같이 처리하고 있고, 인정 도서의 질 제고를 위하여 인정 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신청 준비	인정 신청	심사 준비	심사	사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도서 필요성 검토 · 인정 도서 선정 · 인정 도서의 교육 과정 · 교육 내용 적합성 검토 · 사용 학교 결정 · 저자와의 협의 · 발행사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고등학교장 ▶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도서 신청서 1부 · <구비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사본 10부 ② 저작자 이력서 각 1부 ③ 저작자 대표 선임장 1부 ④ 책별 정가 계산서 1부 ⑤ 출판사 등록 증명서 1부 ⑥ 출판에 관한 약정서 1부 ⑦ 자체 검토 조서 1부 ⑧ 사용 필요성 및 사유 1부 ⑨ 인정 도서 사용 계획 1부 ⑩ 서약서(대표 저작자, 출판 예정자 연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장소 결정 · 심사위원 위촉 · 심사 유의 사항 작성 · 심사 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및 교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교육 · 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기준 적용(필요, 교과 기준) - 심사표 및 심사 집계표 작성 · 심사 의견서 작성 · 수정 요구서 작성 · 심의 · 적격, 부적격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도서 사용 인정 내역 및 편찬 체제 송부 · 인정 도서 관리 대장 기재 · 인정 사항 보고(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매년 2월

IV. 경상남도 인정 도서 현황

순	도서명	영역	순	도서명	영역
1	해처럼 달처럼	인성	40	한자 쓱쓱 지능 쓱쓱 1	한자
2	꿈 한 톨 사랑 두 톨	인성	41	한자 쓱쓱 지능 쓱쓱 2	한자
3	꿈동이의 푸른 날개	인성	42	한자 쓱쓱 지능 쓱쓱 3	한자
4	사랑의 징검다리	인성	43	한자 쓱쓱 지능 쓱쓱 4	한자
5	생각의 오솔길	인성	44	한자 쓱쓱 지능 쓱쓱 5	한자
6	슬기의 웅달샘	인성	45	한자 쓱쓱 지능 쓱쓱 6	한자
7	사자소화 공부	한자	46	자랑스런 우리 양산 3~4	역사
8	자라는 꿈나무	인성	47	자랑스런 우리 양산 5~6	역사
9	모듬으로 여는 세상	인성	48	신 정보와 생활 1	컴퓨터
10	재미있는 민속놀이	인성	49	신 정보와 생활 2	컴퓨터
11	아름다운 우리	인성	50	신 정보와 생활 3	컴퓨터
12	창의 나라 탐구 세상	창의	51	신 정보와 생활 4	컴퓨터
13	생각 여행	창의	52	신 정보와 생활 5	컴퓨터
14	놀자, 창의 나라에서	창의	53	신 정보와 생활 6	컴퓨터
15	재미 쏙쏙 생각 쏙쏙	창의	54	우리 고장 창원	체험
16	열려라 생각주머니 6	창의	55	로봇과 함께 하는 창의성 교육	창의
17	자연과 함께 놀아요	환경	56	멀티미디어 일반	컴퓨터
18	초등 한자 1단계	한자	57	인터넷 일반	컴퓨터
19	초등 한자 2단계	한자	58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20	초등 한자 3단계	한자	59	전자 상거래 일반	경영
21	초등 한자 4단계	한자	60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컴퓨터
22	초등 한자 5단계	한자	61	전자 상거래 일반	경영
23	나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논술	62	정보처리기능사 TOP	컴퓨터
24	새로운 토요일	체험	63	하드프로세스 1급 필기	컴퓨터
25	책 읽는 마을	독서	64	한글 엑셀 2000	컴퓨터
26	창원 사랑	체험	65	멀티미디어 제작	컴퓨터
27	우리 고장 마산	체험	66	전자 상거래 일반	경영
28	더불어 사는 지구촌	환경	67	인터넷 일반	컴퓨터
29	가자, 세계로	국제	68	멀티미디어 일반	컴퓨터
30	우리들은 1학년	인정 도서	69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31	우리 경상남도	인정 도서	70	애완 동물	동물
32	자연과 친해져요	환경	71	농산업 기계	농업
33	자연과 가까워져요	환경	72	멀티미디어 제작 도구	컴퓨터
34	한자 1학년	한자	73	전자 상거래 운용 기술	경영
35	한자 2학년	한자	74	생태와 환경	환경
36	한자 3학년	한자	75	생태와 환경	환경
37	한자 4학년	한자	76	멀티미디어 제작	컴퓨터
38	한자 5학년	한자	77	전자 상거래 일반	경영
39	한자 6학년	한자	초등학교 55권, 중등학교 22권		


교육감 지정 인정 도서는
사회 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반영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학습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연결시키고,
쉽고 재미있게 인정 도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V. 나오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승인한 인정 도서는 초등학교 55권, 중등학교 22권이 있지만, 12월초에 인정 도서 주문을 받아 2월 말에 보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 도서는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처럼 달처럼, 꿈 한 톨 사랑 두 톨, 꿈동이 푸른 날개 등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그리고 한자 교육이 그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에서 지도하기 힘든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측면과 많은 준비물 없이 지도하기에 용이하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자 교육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정 도서 덕분에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한자 실력이 신장되는 것

을 인정 도서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감 지정 인정 도서는 사회 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반영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학습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연결시키고, 쉽고 재미있게 인정 도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정 도서의 개발 보급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칠 때 행복한 학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 

1)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 p.18

지역 교과서의 외적 체제 현황과 문제점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를 중심으로 -

글 | 윤광원 ((주)미래엔컬처그룹 상무이사)



I. 들어가며

초등학교 사회 교과는 “일상생활 경험을 토대로 주위의 현상에 익숙하게 하고,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고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능력과 습관 및 태도를 익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렇게 보면, 사회 교과는 시대의 변화에 가장 먼저 부응하면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여 이해하면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교과목이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질과 방향은 과거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다소 미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과서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은 여전하다고 하겠다.

최근의 정치적 경제적 흐름을 보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정부의 많은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 분권화되고 있으며, 지방 단위의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적 능력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계에서도 중앙 집권적이던 교육과정의 경직성과 획일성에서 탈피, 교육 행정 및 단위 학교 교사들의 창의적이고도 지역 사회에 적합한 교육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 과정을 걷고 있다.

교육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교과서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과 맞물려 이와 같은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많은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바로 사회과가 아닐까 한다.

사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교육과정을 연관하여 볼

때, 제5차 이전의 교육과정까지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자기 고장의 역사, 전통, 특수성에 대한 학습이 없어 현실과 괴리된 교육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는 ‘지역화 학습’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지역화 학습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는 한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고장 발전에 협동하고 봉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¹⁾

이 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화 교과서인 사회과 탐구(4-1)의 외적 체제와 지역별 차이점을 살펴보고, 지역 교과서 편찬 발행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역화 교과서의 개발 개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국정 교과서 위주로 개발 보급되어 왔으나, 제5차 교육과정기에 초등학교 사회과 4학년 1학기 지역 교과서(1단원을 지역단원으로 제시), 제6차 교육과정기의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 탐구(4학년 1학기) 등을 개발함으로써 교과서 발행 제도를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은 물론 그 운영권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4학년 1학기)가 시·도 지역 인정 교과서로 개발, 보급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16개 시·도 지역 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는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 탐구(4-1) 교과

지역 교과서 개발 시에는
전문 삽화가 및 사진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지역 연고의 비전문가들이 삽화와 사진을 담당함으로써
질적인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 소규모 출판사의 비전문적인 북디자이너들이 개발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내용과 사진, 삽화,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서는 교과서마다 체제, 내용, 판면 구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Ⅲ. 지역 교과서의 외적 체제 분석

(1) 판형

판형의 선택은 가독성과 경제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주요 요소이다. 교과용 도서의 판형은 제7차 교육과정기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초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국판과 4×6배판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용 도서가 4×6배판으로 통일되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 지역 교과서도 모두 4×6배판을 따르고 있다.

(2) 지질

교과용 도서의 지질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현행 초등학교 국정 도서의 표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전량 250g/m² 백색 유광 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 교과서도 대부분이 이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본문 용지 또한 현행 초등학교 국정도서의 지질인 75g/m² 교과서지(일명 신개발지)를 사용하는 곳이 다수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품질 향상과 고급화를 위하여 80g/m² 백색 무광 아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색도와 제본

지역 교과서의 색도와 제본 상태를 확인한 결과, 색도는 모두 4도를 사용하였고, 제본은 무선철 좌철식

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색도의 결정은 지질과 부합되어 인쇄 효과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별 특성과 교과 내용에 상응한 색도를 선정해야 하는데, 현재 컬러 인쇄는 안료를 기준으로 한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의 4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빛에 의한 색인 RGB(Red, Green, Blue)와 달리 CMYK는 표현하지 못하는 컬러도 많다. 그래서 인쇄 시에는 CMYK 외에 별색이라는 컬러를 첨가해서 가능한 RGB 컬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수학과 같은 과목은 과다한 색의 사용을 오히려 금하고 있으나, 사진 자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과 지역 교과서는 사실적인 색을 재현하기 위해 4도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 모든 지역 교과서가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본 방법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는 사회과 부도만이 반양장 좌철식을 사용하고 무선철 좌철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지역 교과서는 모두 무선철 좌철식을 따르고 있었다.

(4) 판면 구성

교과용 도서의 판면은 학교 급별, 교과목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하되, 표지, 면지, 화보, 속표지, 머리말, 차례, 본문(화보), 부록, 저작 관계자 및 발행권 등의 순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지역 교과서에 나타난 판면 구성은 대부분이 '표지 - (머리말) - 속표지 - 지역 지도 - 차례 - 본문 - 부록(인용 자료, 백지도) - 저작 관계자 및 발행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성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 개 요소에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4개 시 도에서는 머리말이 빠져 있다. 그러나 그 밖의 12개 시 도에서는 ‘이 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또는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라는 타이틀로 지역 교과서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머리말이 실려 있다.

(5) 서체 및 글자 크기

교과용 도서에서 서체와 글자의 크기는 가독성의 향상과 주의 집중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 글자꼴이 수백 종에 이르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쓰이는 글자꼴은 명조와 고딕의 형태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글자꼴은 종류보다는 이용자로 하여금 내용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사용 예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용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대한교과서(주)에서 사용하는 글자꼴을 간접적으로 따르고 있다.

서체의 사용 실태를 교과, 학년, 단원, 주제, 제제, 본문별로 주거나, 같은 계열을 사용할 경우 진하게(굵게), 보통 등으로 변화를 주어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문의 내용은 표준인 명조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문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도표는 대개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다.

표지와 차례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꼴과 입체감을 살리는 기법이 나타나는 것은 배경이 사진으로 되어 있어 사진과 글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본문의 글자 크기는 국정도서 3, 4학년의 바탕 글씨의 크기인 14~15포인트를 모두 따르고 있다.

(6) 지역 교과서 발행 공급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지역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아 대한교과서(주)에서 공급하는 국정 도서와 달리, 발행과 공급을 개별 출판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특히, 지역화 교과서는 사용처가 1개 시 도에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수급이나 지역 사회의 변화상의 반영을 위한 저작권자와 편찬자의 수정 보완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역의 출판사가 발행과 공급을 담당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12개 시 도가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용 국정 도서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교과서(주)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지역 교과서의 편찬 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지역 교과서의 편찬 발행의 문제점

(가) 외형 체제상의 질적인 문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교과서의 판형은 주로 4×6배판에 판면과 문자들을 국정 교과서에 준하여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교과서의 면면을 살펴보면 삽화의 질이라든가 사진의 선명도, 내용과 사진의 연관성, 디자인의 구성도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 교과서 개발 시에는 전문 삽화가 및 사진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지역 연고의 비전문가들이 삽화와 사진을 담당함으로써 질적인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소규모 출판사의 비전문적인 복디자이너들이 개발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내용과 사진, 삽화,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삽화는 교과서 내용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삽화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삽화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삽화가 표현해 내는 내용에 있어 잘못은 없어야 한다. 지역 교과서의 경우에는 비전문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아 표현상의 잘못, 표기상의 잘못, 구도상의 많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려지고 교과서에 실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지역 정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 표현력의 부족, 표현 기법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또, 중앙 정부 부처의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전문 삽화가와 사진작가들을 통한 공동 작업을 할 수 없는 요인도 있다.

그리고 우수한 편집진은 교과서의 내용을 풍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편집자의 역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띄어쓰기나 맞춤법 규정에 의한 교정 작업 등은 필수이며, 내용상의 오류를 점검하고 부족한 자료와 내용을 보완해 주는 등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편집자의 전문성 확보 및 편집진의 체계적인 구성이 어려운 영세 출판 업체를 통한 편집은 한계성을 지닌다.

(나) 개발 시스템상의 문제

교과서 개발은 연구 단계와 집필 단계, 삽화와 사진 등의 제작 단계, 조판 편집 디자인 단계, 인쇄 공급의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 교과서 또한 이

와 같은 단계를 밟으며 한 권의 교과서를 탄생시키게 되는데, 해당 지역의 지역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교사, 해당 기관의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구 집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완성도 높은 원고를 다듬고 꾸며 주며 보완해 주는 질 높은 삽화와 사진, 편집, 디자인도 필요하다.

인쇄에 있어에서도 잘 만들어진 교과서를 좋은 가격으로 인쇄하고 제본해 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공급 또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규정할 때, 지역 교과서는 각 단계에 약간의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편집 디자인 단계와 인쇄 공급 단계이다. 이 두 단계의 문제점은 다음의 전국 16개 시도 지역 교과서 발행 현황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표】 전국 16개 시도 지역 교과서 발행 현황표(2008학년도)

지역	책명	발행 업체	하청 업체
서울특별시	서울의 생활 4-1	장애인복지조합	
부산광역시	부산의 생활 4-1	다인커뮤니케이션	대한교과서(주)
대구광역시	대구의 생활 4-1	(주)동화사	
대전광역시	대전의 생활 4-1	삼화옵셋인쇄사	대한교과서(주)
광주광역시	광주의 생활 4-1	한길사	지역 업체
인천광역시	인천의 생활 4-1	진원프린텍	대한교과서(주)
울산광역시	울산의 생활	디자인위크	부산지역업체
경기도	경기도의 생활 4-1	한라에드(주)	대한교과서(주)
강원도	강원도의 생활 4-1	강원도민일보	서울업체
충청북도	살기 좋은 충청북도 4-1	대청정판사	대한교과서(주)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생활 4-1	세종디자인기획	대한교과서(주)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생활 4-1	참기획	대한교과서(주)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생활 4-1	태양사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생활 4-1	대한교과서(주)	대한교과서(주)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생활 4-1	삼덕인쇄	대한교과서(주)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제주도 4	대한교과서(주)	

절대 경비로 제작되는 지역 교과서의 경우에
 입찰 방식을 통한 발행과 재하청의 관계에서
 낮은 입찰금과 재하청의 고리 속에서 교과서의 질은 낮아지고 조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앙의 능력 있는 출판사의 입찰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 우선의 편협한 입찰 방식을 통한 지역 편향적인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질 높은 교과서의 발행의 바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발행 업체는 주로 해당 지역의 출판 업체로, 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실제 편집 인쇄 공급은 대부분이 하청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을 하고 있다. 발행 업체는 하청 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앉아서 버는 셈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업체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지역 사랑에 대하여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는 하지만, 발행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출판사를 선정하여 재하청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이처럼 발행 능력이 없음에도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과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입찰 방식이라는 특이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도 문제가 있으며, 자칫 시·도 지역 인사의 관련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지인(동문)들을 통한 지역 편향적 편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락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절대 경비로 제작되는 지역 교과서의 경우에 입찰 방식을 통한 발행과 재하청의 관계에서 낮은 입찰금과 재하청의 고리 속에서 교과서의 질은 낮아지고 조악해질 수밖에 없다. 또, 지속적인 데이터의 관리 및 질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졸속의 교과서가 매년 발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앙의 능력 있는 출판사의 입찰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 우선의 편협한 입찰 방식을 통한 지역 편향적인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질 높은 교과서의 발행의 바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2) 지역 교과서의 편찬 발행의 개선 방안

(가) 외형 체제상의 질적인 개선 방안

지역 교과서의 외형 체제는 삽화, 사진, 디자인이 질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우수한 외형의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우수한 삽화와 질 높은 사진 등 우수한 편집 재료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설계되어야 한다. 우수한 삽화, 사진은 재정적인 요인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해당 지역에 그러한 인적 자원과 전문 출판사가 없다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중앙의 전문가 및 출판사들과 공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편협한 지역 편향주의는 그 지역 교과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며, 그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지역 전체가 낙후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우수한 편집 디자이너의 참여이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편집진과 디자이너의 협조 체제는 판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쪽 한 쪽 다양한 볼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포장 전문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 중견 출판사에서는 지역 교과서의 주문 생산을 맡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러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노력함으로써 교과서 질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 영세적 한계에 부딪혀 중앙의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규모 있는 출판사에게 재하청을 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온 재하청 방식의 교과서 생산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기여는 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면 자율 경쟁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 좋은 교과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최저가 입찰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나) 개발 시스템상의 개선 방안

지역 교과서의 연구 집필은 해당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적인 단순 입찰 방식보다는 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의 관련 기관의 지원 및 관리 체계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단위의 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유관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부서를 신설 또는 보완하여 지역 교과서의 내용을 점검해 주고, 연구 활동에 공조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우수한 집필자 양성을 위한 재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편향주의 입찰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교과서 발행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지역의 출판사는 극히 드물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발행 업체에 저가의 낙찰금으로 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발행 업체는 반드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또다른 업체를 하청 업체로 선정하여 발행 공급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편향주의적인 입찰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입찰 방식을 고집한다면 지역 한계 입찰과 저가 입찰 방식을 탈피하여 우수한 편집진, 우수한 디자이너, 좋은 인쇄 기계, 잘 갖추어진 공급망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출판사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의 출판사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 경쟁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적기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급 체계의 정비이다. 교육청 단위의 독자적인 주문과 수주 업체에 생산과 공급을 하게 함으로써 일정 관리 및 질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통합 주문과 국 검정 교과서 공급 시스템에 위탁하여 국 검정 교과서 공급 시에 함께 지역 교과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과 탐구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역 교과서의 외형 체제, 편찬 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기존의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체계에 준하여 제작되었으며, 교과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력과 장기간에 걸쳐 제작된 국 검정 교과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체계적인 집필이 이루어지게 하는 초기 단계의 역할은 각 시도 교육의 주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편협된 인적 구성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필진 연수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앙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삽화, 사진, 디자인, 편집 등의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이 갖추어진 업체가 개발 수정 작업에 참여해야 하며,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생산과 공

급 단계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생산의 질을 높이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온 재하청 방식의 교과서 생산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기여는 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면 자율 경쟁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 좋은 교과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최저가 입찰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¹⁾

1) 전북교육과정연구회, '사회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방안', 「초등교육과정연구」 제11호,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pp. 129~130, 2006.

참고 문헌

-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06-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
-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2006-0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
- 국정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03-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 체제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임형섭, 2003.
-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1998.
-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초등교육과정연구 제8호, 2003.
- 사회과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선 방향. 초등교육과정연구 제10호, 2005.
- 학교 교육과정 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초등교육과정연구 제11호, 2006.
- 초등 사회 모범 교과서 연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모범교과서개발위원회, 2003.

GIES 교실 수업 창조 전략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사의 역할 탐색



글 | 박보영
광양제철초등학교 교장

I. 시작하며

21세기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생토록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만큼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기존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 가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는 스스로 학습하려는 동기가 없거나, 다양한 처지와 성향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지식을 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고자 내적 학습 동기 형성, 탐구식 수업 실시, 건강한 학습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왔다. 이 글에서는 본교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1. 내적 학습 동기 형성에 주력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란 학생이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다. 학습자 스스로 공부하는 의미와 동기를 찾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1) 자기 정체성 탐색

우리는 학생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흥미 있고 무엇을 잘하는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비교적 많이 주었다. 중학교 1~2학년 방학 때마다 주어지는 자기 주도적 탐구 과제와 ‘졸업 작품’(중학교 3학년)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탐구 과제를 수행하고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소질과 적성은 무엇인지 탐색해 나간다. 그리하여 공부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감이 없던 아이들이 이를 통해 삶의 목표와 자신감을 얻으면서 학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와 직업(1학년), 인턴십(2학년), 졸업 작품(3학년)을 거치면서 자기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더욱 심화시켜 나간다.

(2) 삶의 맥락과 연결

각 교과 수업 현장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니 밑줄 죽 긋고 외워.”가 아니라 나의 인생, 그리고 세상살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 주려고 애쓰는 편이다. 가령, 사회나 도덕과에서 배우는 개념이 현실의 어떤 측면과 관련 있는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 주거나 학생들 스스로 추리하게 한다. 또, 수학적 개념이나 공식의 발생 과정을 학생들이 재현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학이 실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다가 학생들은 농촌 봉사 기행, 통합 기행,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겪으며, 그림자처럼 실체 없이 다가왔던 교과 지식의 의미를 펴뜩 깨치기도 한다. 농촌 봉사 기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사회과에서 익힌 품앗이나 두레의 의미를 피부로 실감하기도 하고, 해외 통합 기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민주주의 체제가 왜 소중한지,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깨닫기도 한다.

(3) 학부모와의 소통

본교는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웃집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 모임이나 학부모와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의 내적 학습 동기를 키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사교육이 당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아이들의 의존성만 키우고 내적 에너지를 갉아 먹는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교과 포럼’ 등을 통해 각 교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분당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교생의 대다수가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2. 탐구식 수업을 통한 사고력 신장

우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주입식보다 탐구식 교수 방법의 비중을 높이려고 했다. ‘4+2’라는 기존의 학제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탐구식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탐구식 교수 방법은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적이고 협동적인 탐구를 수업 과정에 담아낸다. 또, 그 결과를 테스트의 형태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나 에세이(논술), 연극 등의 형태로 표현해 학습 경험을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개교 초기에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못해 탐구식 수업의 이상과 실제 간에 적잖은 괴리가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업 혁신을 목표로 전체 교사나

학년(교과) 단위 교사들이 모여 수업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며 어디에서 배움이 주춤거리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관찰하며, 연구회에서 각자 본 사실과 배운 내용을 교류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우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과에 대해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우중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능력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사고 능력’(40.7%)의 성장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23.7%), ‘토론 능력’(19.8%), ‘진로 의식 발달’(17.6%), ‘교과 실력’(3.6%)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고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저학년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토론 능력’이 성장했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3. 건강한 학습 생태계 조성

아이들이 정규 수업만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구성하기는 어렵다. 이 틈새를 메우고 있는 게 바로 사교육 시장이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이우중 고등학교에서 심화 또는 보충 학습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을까?

(1) 서로 묻고 가르쳐 주는 분위기

본교는 2006년부터 학생 한 명도 빠짐없이 활기차게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학교를 아이들이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남녀 혼성에 학습 능력과 속도가 서로 다른 아이들로 모둠을 구성해서, 서로 묻고 가르쳐 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영어 수학의 교과도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반을 구성했다. 사실, 이에 대한 불만이 한동안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아이들 모두에게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위 그룹 아이들도 친구로부터 자극과 도움을 받고 지적 도약을 할 수 있었으며, 상위 그룹 아이들도 다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학력이 향상됐다.

서로 묻고 가르쳐 주는 분위기는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로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됐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35.4%), 그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17.3%)이나 부모 형제들의 도움(11.7%)을 받아 해결했다. 과외나 학원에서 해결한다는 학생은 5.6%에 불과했다.

(2) 학습 동아리

개교 초부터 2005년까지 무수히 많은 학습 동아리가 신학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오래지 않아 사라지곤 했다. 안정적인 리더가 없거나 너무 많은 행사의 틈바구니에서 학습 리듬이 깨져버리는 등의 여러 요인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됐고, 이와 함께 성공적인 학습 동아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수학 동아리, 선생님들이 이끄는 학습 동아리, 졸업생 선배가 도와주는 학습 동아리, 시험 기간에 반짝 나타나는 학습 동아리, 부모님이 이끄는 독서 클럽 등. 학습 동아리마다 그 운영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점은 아이들의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즉, 아이들이 원

해서 참여하고,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지도 교사가 일일이 지식을 떠먹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런 건강한 학습 생태계가 우여곡절 끝에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 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는다.’는 철학이 교육과정의 기저에 흐르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중학교 성적 통지표에 점수와 평어(評語)는 기록하되 등수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게다가 수행 평가를 할 때도 아이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기 때문에 지필 평가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옆의 친구가 잘하냐 못하냐는 자신의 성취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학업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친구나 선후배와의 소통과 협력이 일어날 수 없다. 또,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아이를 친구와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 간에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학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III. 맺음말

이렇듯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본교 학생들은 학습 동기가 대체로 높다.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이따금 학교를 찾는 참관인 모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다고 이야기한다. 또, 타인과의 소통 또는 협력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비교적 높다. 학생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모둠 친구들과 상의해 풀기도 하고, 보고서나 논술문, 독후감, 시 콩트 극본 등을 작성하는 과제를 혼자 또는 친구들과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간다.

그런데 본교의 교육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지만 당면한 대학 입학 시험에는 다소간 마이너스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우중 출신의 첫 이우고 진학 사례인 올해 3학년 학생의 학력 추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2년여 전인 고등학교 진학 후 최초로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상 분포 곡선을 보였으나, 2학년 또는 3학년이 되자 7~9등급은 거의 사라지고 일부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성적이 상향 이동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학력과 비교했을 때 대학도 분명히 더 잘 갔다.

이런 본교의 경험을 돌아볼 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 운영하는 일이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절실하게 요청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글 |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장학사

I.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과의 첫 만남

창밖의 나뭇잎 색깔이 점점 열려져 가는 지난해 이맘때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로 몸담고 있을 때였다. 교육장이 초 중등 장학사와 장학관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2008학년도 특수 시책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고며 그 계획의 개요를 설명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는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교과 교육실을 운영하여 교사는 그곳에 머물러 찾아오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그때만 해도 교육장의 설명은 마음속에 와 닿지 않았다. 교사가 이끌어 주어도 쫓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공부하며, 현재 주어진 학년만 가르치는 데에도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6개 학년의 모든 내용을 섭렵하고 지도하라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육장의 새로운 생각은 좋으나 이것은 학습 부진만 더할 뿐더러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II.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로 깊은 인연을 맺다

그렇게 처음 접했던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로 진한 만남을 가지도록 해 주었다. 2008년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도에는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2009학년도에는 관내 초 중학교에 모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필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목적²⁾과 방침³⁾을 수십 번 읽어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고,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방향⁴⁾에 제시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방향 설정을 위하여 남양주 양지초등학교 김만곤 교장을 찾아갔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은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려는 교사 중심의 획일적 지식 주입식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을 우선하여 개개인에 맞는 학습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며,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계획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라고 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장이 읽어 보라고 한 핀란드 교육 관련 보고서⁴⁾와 김만곤 교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주체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 교육계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집단적 지도 방법에 비해 보다 수준 높은 단계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교사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며 시범 운영을 하다

우선 희망에 의한 소규모 학교 2개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했다.⁵⁾ 그 학교의 교사들과 수업 실기 우수 교사 및 전문 지식이 풍부한 교사들로 조직한 교과별 지원단 104명의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분석과 동시에 개별 프로그램 개발에 몰입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처음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범 학교 교사 및 지원단의 의구심은 엄청났고, 만날 때마다 장시간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3차에 걸친 연수를 실시했으나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그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7명(2004년 기준)인 핀란드와 같은 나라만 가능하며, 바쁜 교사들의 시간만 낭비하고 학업 부진만 증가할 뿐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범 학교 교장과 교육장이 참석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새로운 교육과정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는 학부모들도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비추었다. 그 자리에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탑재하여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은 계획대로 운영했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그들의 마인드를 형성해 보고자 맞춤 수업 2008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산의 우수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했다.⁶⁾ 그곳에도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모델은 찾을 수 없었으나 그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느꼈고,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을 보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교사는 차려진 밥상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탐구 중심 수업 방식을 비롯하여 기존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시 학교형 대안 학교를 찾았다.⁷⁾ 공교육 모델 학교로 운영되는 분당의 이우학교는 어느 면에서는 공교육의 현실과 한계가 있었지만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담당자에게는 몇 가지 신선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특히, 기존 공립 학교의 지식 주입식 교육,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육, 질문보다는 답변 중심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교사가 먼저 시스템에 적응하여 마음을 열면 학생들은 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가 가르쳐 주어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스템 운영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학력 저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주장하는 교사들은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그 열정을 마음을 여는 데 바쳐야 한다는 것도 느꼈다.

6월에는 시범 학교에서 지원단과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했다.⁸⁾ 학생 스스로 차이나 단원 내에서 활동을 선택하여 주간 학습 계획을 작성한 후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반대

의견만 내세우던 3월 초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원단들도 다양한 교사 자료와 학생 활동 자료로 수집,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으며 학습 자료 개발에 두었던 지원단의 역할을 시범 운영 학교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수업 공개 후, 교과별 팀장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지원단들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⁹⁾ 1박 2일간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지원단의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마인드가 비판 단계를 넘어서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발전했으며 열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Ⅳ.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개국의 초등학교 4, 5학년 2,349명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¹⁰⁾ ‘수업이 재미있다.’와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한다.’에 대한 답변은 4개국 중 가장 낮았으나, 공부를 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는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질문하는 교실이 아니고 대답하는 교실이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사의 설명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구시대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실의 현실을 나타낸 것이다.¹¹⁾

지난 9월, 경기도교육감도 핀란드의 교육을 직접 둘러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없으며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구시대적 형태에서 벗어나려면 학교 혼자서만 변해서는 어려우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교사의 의식 전환이 우선이다. 암기보다는 탐구하고 비판하는 교육으로,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학생 각자에게 맞는 학습 방법으로, 대답하는 교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교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 고급의 지식과 능력을 길러 주는 교실로 바뀔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김만곤 교장은 ‘우리나라 교실도 설명해 주고 그 설명에 대해 질문을 하면 겨우 대답하는 교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다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안내해 주는 교실, 즉 질문하는 교실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과정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교육 행정가들의 자세도 바뀌어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지금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을 떠나 경기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다시 한 번 교육과정과 인연이 맺어진다면 더욱 더 멋지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 1)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 목적(2008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계획서)
 -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실천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육성
 - 학생의 성장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
 -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 2)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 방침(2008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계획서)
 - 모든 학생들이 국가 수준의 기초 학력을 갖추게 한다.
 - 모든 영역(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적용하고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와 관심, 장래 진로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한다.
 -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 총론. pp. 110~111.
- 4) '교육 강국 핀란드의 성공 비결'.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 연구실장이 '핀란드의 공교육 개혁과 종합학교 운영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 보고 자료 OR 2007-3-8호)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작성한 보고서임.
- 5) 가양초등학교(6학급), 호평초등학교(6학급)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지정 연구 학교로 선정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6) 지원단 18명은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단기 방학을 이용하여 부산신덕초등학교, 화잠초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을 둘러보며 현장 교육의 시야를 넓히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 7) 2008년 6월 5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우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업 참관, 학교 둘러보기를 하였다.
- 8) 2008년 6월 10일은 호평초등학교에서, 6월 11일은 가양초등학교에서 수업을 공개하였다.
- 9) 2008년 6월 27일에서 28일까지 남양주 백봉스포월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덕성여대 이용숙 교수의 특강, 시범 학교 운영 사례 발표, 교과별 지원 방향 협의 등으로 실시하였다.
-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수업이 재미있다.(프랑스 55%, 영국 48%, 일본 42.6%, 우리나라 35.2%)',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한다.(일본 41.7%, 프랑스 34%, 영국 32.3%, 우리나라 19.9%)',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우리나라 72.6%, 프랑스 1.0%, 일본 0.96%, 영국 0.8%)'로 나타났다.
- 11) '왜 재미없는 공부를 시키나'. 남양주 양지초등학교 김만곤 교장의 블로그(<http://blog.daum.net.blueletter01>)
- 12) '주연 의식과 조연 의식(Ⅲ)'. 남양주 양지초등학교 김만곤 교장의 블로그(<http://blog.daum.net.blueletter01>)

역사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글 |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I. 서론: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족은 역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는 역사 교육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 정신을 배우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추게 된다. 더욱이 21세기 세계화의 시대를 살면서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 정체성의 확립은 절실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적을 가진 세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역사 교육을 강조하면 보수적 또는 국수주의적이고 역사 교육은 세계화를 위해 불필요하다거나 심지어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수란 대개 기존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옹호하려는 입장을 말하는데 국사에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19601970년대 국수주의 입장에서 국사 교육 강조가 결국 유신 정권의 이념적 지지 기반으로 전락한 쓰라린 경험도 있다. 반면, 그러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현실 사회의 모순 관계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이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극복하려는 경향도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이다. 자기 문화 전통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문화에 대한 균형감을 갖춘 인식을 함양하지 않고서는 민족과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역사 교육을 축소하는 것은 균형 감각이 없는 뒤떨어진 생각이다.

진정한 세계화는 민족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국제화에 걸맞은 세계 문화란 어디에서 갑자기 생겨난 보편 문화가 아니고 더욱 서구 문화가 곧 세계 문화도 아니다.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한 단계 높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 세계화 시대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사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역사 분쟁이 시작되었다

한 중 일 삼국은 지금 역사 분쟁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말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동북 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는 1980년대부터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과 그 전후 처리에 대한 역사 분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

제는 항상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역사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만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다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역사 과목의 독립과 수업 시수 확대 등을 담은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학교에서 ‘사회’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던 ‘세계사’ 내용과 ‘한국사’ 내용을 묶어서 별도의 역사 교과서와 시수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 수업 시수를 3시간으로 조정된 것은 그 동안 위축되었던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교육 현장의 국사 교육은 매우 심각하다. 국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의 일부로 되어 있다. 초등은 5, 6학년 한 학기씩, 중학교는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씩 사회 과목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양적으로 별도의 교과서 별도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시간 부족으로 질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로 배우는 국사에서 전근대사와 간략한 근현대사를 배운다고 하지만 교과서의 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내용적으로는 수업 시수의 부족으로 정치 경제 사회사는 배우지만 문화사는 조선 후기까지만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2 3학년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한국근현대사’는 53.2%(2007) 정도만 선택하여 46.8%의 학생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근현대사를 배울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 근현대사 교육이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사 교육의 현실이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대학수학

능력시험 사회 탐구 영역에서 조차 ‘국사’는 12%, ‘한국근현대사’는 13%만 선택하여 기피하는 과목으로 전락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사 교육은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Ⅲ. 역사를 전공한 교사가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역사 과목을 독립,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은 중학교에서 ‘사회’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던 ‘세계사’ 내용을 독립시켜 별도의 교과서와 시수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고등학교 1학년 ‘역사’ 수업 시수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킨 것이다. 현재 중학교 국사와 사회(세계사)는, 교과서는 따로 있지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는 사회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표에 사회 과목으로 성적이 표기되고,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사회 및 지리 전공 교사가 국사, 세계사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 독립’은, 완전한 ‘교과 독립’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역사를 전공한 교사가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역사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또, 10학년(고등학교 1) 과정의 필수인 ‘역사’ 과목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자국사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사 교육의 정상화와 바람직한 한국사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현행 선택 과목인 ‘한국근현대사’와 ‘세계사’는 ‘한국문화사’와 ‘세계역사의 이해’로 각각 바뀐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동아시아사’를 신설한 조치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조성되고 있는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

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현행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등 2과목에서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등 3과목으로 늘어나게 되어 역사 과목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와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수준 높고 균형 잡힌 차세대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초 중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과서, 양질의 교과서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국가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또는 개정의 요구와 함께 교육 정책 당국이 다루어야 할 현안 문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교과서는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 학습 활동의 기본 도서를 말한다. 교과서가 다른 학술 논문이나 대중 도서 등과 다른 점은 바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충실히 입각하여 제작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서 교과서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역사 수업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많이 교과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 인식이나 역사적 관점을 배양하는 중요한 교구로 쓰인다. 역사 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발행 문제는 바로 역사 교육의 문제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 역사 교사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역사 교과서 발행 제도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전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양한 역사 해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검정제도도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 근현대사의 편향성 문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에서 보았듯이 역사를 보는 시각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검정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혼란과 막중한 학습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검정 기준, 집필상의 유의점 등을 고려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찬 과정을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런데 2006년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협조를 얻어 5억여 원을 투입해 2년여에 걸쳐 차세대 과학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생활 장면을 소재로 과학 개념을 이야기처럼 풀어서 설명하고 잡지처럼 멋지게 디자인하는 등 기존 과학 교과서와 크게 차별화했다고 한다.

이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는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전환함에 따라 출판사는 현재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재미있고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또,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내용별, 수준별 다양한 교과서가 연구 개발 되어야 한다. 재미있고 흥미 있는 차세대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술 체제, 예컨대 시대사 체제와 분류사 체제, 종합을 지향한 체제와 주제 중심의 체제, 국가사 체제와 향토사 체제, 사료 문화

재 역사 지도 중심의 편술 체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차별화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여러 모임에서 경쟁적으로 공을 들인 여러 유형의 교과서가 쏟아져 나올 때 보다 좋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출판사가 컨소시엄을 결성, 후원하여 역사학계, 역사 교육학계가 공동으로 가칭 ‘차세대 『역사』 교과서 연구 개발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교과서와 차별화된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계의 권위 있는 집필자의 선정, 역사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내용 검토, 충분한 학교 현장 실험 및 결과 반영, 학교 급별로 교사와 학생의 내용 검토를 통하여 중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과서 개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V. 21세기형 진취적 역사관을 가르치자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 원인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왜곡’이 가한 충격을 들 수 있지만, 세계화가 심화되는 와중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원론에는 대개 찬성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역사 교육의 강화가 역사를 국책 과목으로 설정하고 ‘국정사관’을 주입했던 유신 시대 교육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도적 틀이 일단 정해졌으면 지금부터는 역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차세대가 21세기에 합당한 역사의식을 기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역사 교육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줄기 차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강인한 역사성에 대한 긍지와 책임을 느끼도록 배려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역사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강대국과 각축하면서 우리만 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보전한 예는 세계사에서 보아도 흔치 않다.

둘째, 주변 나라와 공생을 추구한 평화 유지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외국을 침략한 적은 많지 않다. 이 점을 퇴영적 역사일 뿐이라고 비아냥 거릴 수 있지만 평화공영을 지향하는 21세기의 국제 사회에서 부각시킬 만한 특징이다.

셋째,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와 협력을 성취한 사례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는 외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외국 문물을 풍부히 섭취해 소화한 시대에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화의 추세가 거세지는 21세기에 진취적 역사관을 가르쳐야 한다.

끝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유와 아량을 가진 역사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소중하듯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룬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역사 교육으로

글 | 구난희
덕수중학교 교감



I. 들어가는 말

가끔씩 딸아이랑 함께 장을 보러 가면 답답할 때가 있다. “엄마, 우유 가져올게요.”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우유를 가지러 간 아이는 도무지 돌아올 줄을 모른다. 기다리다 못해 직접 우유 코너로 찾아가 보면 아이는 온갖 우유를 하나씩 꺼내 들며 성분, 함량, 유통 기한 등을 요리조리 읽어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를 거듭하고 있다. “애, 아무거나 하나 골라. 이거 어때?”, “그건 DHL이 함유되어 있어 좋은데 고소함이 덜해.”, “그럼 이건?”, “이건 저온 살균 때문에 뚜껑 열었을 때 뭔가 떠서 비호감.”, “이 우유는 내가 좋아하지만 유통 기한이 끝나 가.” 마실 우유 하나 고르는 데 무슨 조건이 이리도 많단 말인가? 그렇게 별스럽게 고른 우유는 언제나 꿀꺽꿀꺽 맛나게 삼킨다. 어쨌든 맛나게 먹으니 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냥 ‘우유’ 맛만 느끼며 마셔 왔던 우리 세대로서는 이런 판단과 선택이 낯설기만 하다.

요즘 아이들로부터 느끼는 생경함이 어찌 우유 고르기뿐이겠는가, 사소한 먹을거리로부터 학용품, 양말, MP3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기를 즐긴다. 언제나 그 고르기 이면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러기에 자신

의 선택을 존중하고 책임지려는 의식도 뒤따른다.

이러한 아이들의 습성은 그들에게 제공할 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사고로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사 교육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다. 기성세대들이고 학생이고 할 것 없이 으레 ‘역사’라는 과목을 떠올리면 많은 역사적 사실 지식을 반복 암기하던 기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이나 판단이 필요 없고 기억해 두어야 할 지식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교과서 내용 또한 고조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 변하지 않았다.¹⁾ 그러다 보니 역사는 미래 세대들에게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점차 과거 국사가 누리던 과목의 위상과 지위도 줄어들었다. 분명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낀다.

II. 역사적 사실 이해에 매달려 있는 역사 교육

물론, 역사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에 의한 고구려사 침탈

과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 침탈이 이어지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아 2006년 12월에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개정 고시된 역사 교육과정에 제시한 교육 목표이다.

- (가)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 (나) 현대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현대 세계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한다.
- (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진술된 목표에 따르면 역사 교육은 사실 이해(가), 통찰력 확대(나), 비판적 사고 능력(다), 의미와 가치 평가(라), 태도 함양(마) 등의 다양한 차원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역사 교육을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 이해를 넘어서 사고력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 태도 함양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내용 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역사적 사실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1】 2007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 내용 체제

5학년 ²⁾	8학년	9학년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된 겨레 ○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전 ○ 고려 사회의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사회의 변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 ○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성 ○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 ○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 ○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 세계화와 우리의 미래

물론, 종전과 달리 단순 반복적인 구성은 피하고 학교 급별에 따라 내용 구성의 차별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찰력, 비판적 사고 능력, 가치 태도

함양 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나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관련 단원에서 학습 보조 자료나

역사를 잘 안다는 것은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는 식의 사실적 지식을 잘 아는 것만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더불어 역사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아는 것,

역사적 행위를 한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는 것,

역사적 판단을 하는 것 등이 고루 갖추어질 때

비로소 역사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활동 자료를 첨부하여 부수적으로 계발되도록 구성될 것이며, 학습 내용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 지식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앞서 제시한 교육 목표는 선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 교육 내용을 역사적 사실 지식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면 수록되는 내용은 매우 무거운 부담을 안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어서 서술 내용 하나하나가 절대불변의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떠안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서술하였는지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특정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교과서는 학생 교육을 넘어서서 필요 이상의 제한과 요구를 받게 된다.

선대조의 전승 행적을 교과서에 수록해 달라는 문종의 요구로부터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참여했던 당사자의 요구까지 온갖 민원이 교과서에 쏟아진다. 상고사를 둘러싼 국사 교과서 논쟁은 수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행정 심판을 거치기도 했고,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교과서는 매우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명제로 서술되고, 학생들은 그것을 그저 암기해야 하는 박제된 지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두 차례 교육 외적 공방에 시달리고 나면 어떻게든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봉합하는 최소한의 서술이 끼어들게 되고 이런 사례가 하나, 둘 반복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한없이 가중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사실을 두고 논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견해 없이 두루뭉술한 모범 답안을 찾아 내는 데 숙련될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라는 학문적 특성으로 보아도, 지식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학생들의 변화된 학습 심리적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Ⅲ. 성취 수준 중심의 역사 교육으로 전환해야

이 글은 새로운 전환의 주요한 고리의 하나로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할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누구나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한결 같이 주장하지만 정작 역사를 잘 안다는 것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다.

역사를 잘 안다는 것은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는 식의 사실적 지식을 잘 아는 것만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더불어 역사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아는 것, 역사적 행위를 한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는 것, 역사적 판단을 하는 것 등이 고루 갖추어질 때 비로소 역사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은 다른 나머지를 알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은 다시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 과거 사건이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역사적 서술을 평가하고 비판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 역사적

탐구 기술을 배우는 것, 역사적 서술 기법을 배우는 것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성취 수준이 상세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용 체계는 역사적 사실 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차원의 사고 능력과 가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성취 수준 중심의 역사 교육이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사례의 하나로 영국의 역사 교육 현황을 살펴보자. 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8단계의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³⁾

【표 2】 영국의 국가 수준 역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수준

수 준	각 단계별 성취 수준
■ 수준 1	학생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인식한다. 학생들은 몇몇 사건이나 사물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시간의 경과에 대하여 일상적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 의식을 보여 준다.
■ 수준 2	학생들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사건이나 사물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들 자신의 삶과 과거 시대의 여러 측면들을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발달하는 연대 의식을 보여 준다. 학생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과거가 표현되는 몇몇 서로 다른 방식들을 확인하기 시작한다.
■ 수준 3	학생들은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에 나오는 몇몇 주요 사건이나 사람, 변화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실적 지식과 이해를 나타낸다. 학생들은 주요 사건들이나 변화들의 몇 가지 이유와 결과를 제시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과거에 관한 질문의 답을 찾아낸다.
■ 수준 4	학생들은 주요 사건들이나 변화에 몇 가지 이유와 결과를 부여한다. 학생들은 과거의 여러 측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제시되고 해석되는지를 보여 준다. 학생들은 자료로부터 정보를 선택하고 결합시키기 시작한다.
■ 수준 5	학생들은 과거 사회와 시대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그것들을 연결 짓기 시작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사건이나 변화들의 합당한 이유와 결과들을 기술하고 그것들을 연결 짓는다. 학생들은 몇몇 사건이나 사람, 변화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며,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제시한다.
■ 수준 6	학생들은 사건이나 변화들의 이유와 결과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사건과 사람, 변화들의 서로 다른 역사적 해석들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정보원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결론에 도달하고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비판적으로 활용한다. 학생들은 구조화된 학업을 하기 위해 연대와 용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고 전개시킨다.
■ 수준 7	학생들은 특정한 시대나 사회의 특징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건이나 변화들의 이유와 결과를 분석하는 데 이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해석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왜 생겨나는지를 설명한다. 학생들은 이어지는 탐구 과정에서 정보원들을 비판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대와 용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독자성을 보여 주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구체화된 결론들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 수준 8	사건과 변화들의 이유와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과 분석은 자신들의 보다 폭넓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정된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해석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며 평가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원을 비판적으로 활용하며 역사적 토막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구체화된 결론에 도달한다.

한국의 역사 교육과정과 달리, 역사 교육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 능력과 가치 태도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궁극적으로 교과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역사 교과서 구성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영국 초등 역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⁴⁾

▲ 읽기 자료 ▽ 활동 자료 ■ 설명 자료

주 제	주요 내용
장난감, 옛것과 새것	▽ 엘라네 가족의 장난감을 소개, 옛것과 최근의 것을 구분 - 엘라 할아버지의 장난감(기차 세트)을 조사, '석탄'에 주목 ▽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내가 갖고 놀던 테디 베어 인형을 소개 ▽ 테디 베어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나열, 시대 순으로 정렬해 보기
과거와 현재의 집 비교해 보기	▽ 다양한 종류의 집을 나열, 차이점과 유사점 찾아내기 - 집의 모양, 사용한 자재, 창문의 위치와 크기 등
부엌과 가족들의 물건	▽ 과거와 현재의 부엌(도구) 비교하기 - 현재의 부엌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종류와 기능 알아보기 - 빅토리아 시대의 부엌과 비교하기 - 빅토리아 시대의 엘리리스(13세)가 사용하는 물건 조사하기, 그녀의 하는 일 추측
해변 휴가	▽ 해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놀이 활동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장면을 그림엽서로 제작 ▽ 100년 전 해변 휴가 모습 제시, 현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 찾아내기 ▽ 만약 100년 전에 살았다면 나는 해변 휴가를 어떻게 즐기고 있을지 상상하여 적어보기
나이팅게일과 크림 전쟁	■ 다친 병사를 간호하는 모습의 그림을 소개하여 관심 환기 ▲ 나이팅게일의 일생 (만화) ↓ ▽ 제시 자료 중 두 개의 장면을 선정, 자세히 서술해 보기 ▽ 제시된 읽기 자료를 읽고 질문하고 답해 보기
나이팅게일과 메리 시콜	■ 지도를 통해 크림 전쟁 지역과 스쿠터리 병원 위치 확인 ▽ 나이팅게일이 병사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희망했던 음식 찾아보기 ▲ 메리 시콜의 브리티시 호텔 운영 장면과 메리시콜이 물량을 싣고 옮기는 장면을 소개 ↓ ▽ 메리 시콜이 어디로 갔을까를 추정해 보기 ▽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기
런던 대화재	▽ 과거의 런던 모습과 현재의 런던 모습을 비교하기 ▲ 런던 대화재 (만화) ↓ ▽ 화재 발생지, 발생 원인, 확산 원인, 진화 방법 등을 확인 ▽ 만약 당시 템스 강 반대편에서 화재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화재지에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당시의 심경을 글로 써 보기 ▽ 가장 최선의 진화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보기 ▲ 당시의 모습을 그린 그림 제시 ↓ ▽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 찾아내기 ▲ 화재 전과 화재 후의 가옥 모습 제시 ↓ ▽ 두 시대의 가옥의 차이점과 이유 찾아내기

교육 외적 쟁론으로부터 역사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의 담론을 교육 현장으로부터, 학습자의 바람직한 변화로부터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도

개인적 역사관을 개입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성취 수준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 교과서라는 사전 안내가 없었더라면 어떤 과목의 교과서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첫 장부터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 교과서와는 자못 다르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표 1】의 수준 1~3에서 제시한 ‘현재와 과거의 차이’, ‘시간적 배열’ 등 기초적인 역사 탐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는 교육적 판단에서 선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특정 가문의 요구나 학설 간 이설의 쟁론이 끼어들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과서 내용이나 학습 교재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활용하되, 반드시 위에서 제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실제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GCSE에서는 이의 도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출제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역사적 사고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취 수준의 도달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⁵⁾ 교육과정(교육 목표-내용 구성) - 교과서 - 평가가 체계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현재 한국의 역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IV.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금까지 역사 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역사적 사실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력과 기능,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역사 교육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그 하나의 사례로 영국의 역사 교육 현황을 소개하였지만 그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학습자가 처한 대내외적 학습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나은 역사 교육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연구와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한 역사 교육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교과서가 학습 자료가 아닌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심판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자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교육 외적 쟁론으로부터 역사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의 담론을 교육 현장으로부터, 학습자의 바람직한 변화로부터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도 개인적 역사관을 개입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성취 수준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수행해 온 현장 사례를 아우르는 일이 필요하다. 이미 제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다양한 활동 중심의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왔으며 우수한 사례가 축적되어 왔다. 이제 이를

좀 더 구조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상세화된 성취 수준에 부합하는 학습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기초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인 실천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역사 과목의 이수 여부를 입학 자격 요건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기업의 기획 부서 사원 채용 시에 역사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역사와 역사 연구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가장 적절한 과목이 역사라는 판단에 따른 당연한 배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에서도 역사 과목이 수다한 역사적 사실이나 연대를 줄줄이 암기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검토하고 나름의 논리와 해석을 탐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목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아이들의 태도와 능력이 역사 학습에서도 마음껏 발휘되어 신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 1) 역사가이 시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시대 순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역사 '교육'의 관점에서 주제 중심 접근, 분야사적 접근, 문화권 중심 접근 등 새로운 내용 선정 원리를 모색하고 있다.
- 2) 5학년 내용은 역사 과목이 아니라 '사회'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 3) 제시된 내용은 영국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여기서 제시된 8개 수준 이외에 예외적 수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을 일러둔다.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History in the National Curriculum*(England), HMSO, 1991.)
- 4) Mary Green, *FolensMS History Highlights for infant*(Dunstable : Folens Publishers), 2002.
- 5) 미국의 역사 국가 수준 교육과정 표준에서는 습득해야 할 능력을 아래와 같이 영역화하고, 각 영역별로 5~10 개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the Schools, National Standards for Histor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표준 1. 연대기적 사고(chronological thinking), 표준 2. 역사적 이해(historical comprehension), 표준 3. 역사적 분석과 해석(histor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표준 4. 역사적 탐구 능력(historical research), 표준 5. 역사적 쟁점의 분석과 의사 결정(historical issue analysis and decision making).



글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핀란드의 고등학교 교육

1. 핀란드의 학교 교육 개관

핀란드의 고등학교 교육은 초 중학교 교육의 성과에 기초한다. 초 중학교가 통합된 9년간의 종합 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교육 성과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 무료 교육, 교육 복지 측면에서 고등학교는 초 중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 교육 기회와 성인을 위한 평생 학습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환경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대학이나 직업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목적 지향적이다.

학제는 취학 전 과정 1년, 의무 교육의 기본 교육 과정 9년(7~16세, 중학교 3년은 교과별 교사제), 일반 과정과 직업 훈련 과정으로 양분되는 상급 중등 과정 3년, 기술 대학(polytechnic)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2006년 말 현재 핀란드에는 총 4,610개의 학교가 있다(직업 훈련 센터 제외). 초 중 종합 학교 3,356개, 일반고(lukio) 418개, 초 중 고등 통합 학교 37개, 직업 고등학교 211개, 특성화 직업학교 38개, 음악계 학교 91개, 체육계 학교 14개, 민속 고등학교 88개, 성인 교육 학교 240개, 기술 대학 31개, 종합대 21개, 성인 직업 교육 센터 34개, 학습 센터 11곳, 하계 대학 20개이다. 대부분 핀란드어로 가

르치지만, 스웨덴어, 핀란드 - 스웨덴어 공용, 영어 전용 등의 학교도 있다. 초 중등학교는 법과 국가 수준의 중핵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육 목표에 따라 운영되며, 교육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현장에서 결정 운영되고, 교육 재정은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지원한다. 핀란드에서는 120개의 지자체와 155개의 지자체 연합이 750여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제공자인 지방 자치 단체는 학교 소유권,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학급 규모 결정, 교원 및 교사 채용, 예산 집행, 지역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과 시간 편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국가 교육과정 핵심과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 제공자로서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단위 교육과정을 마련하지만,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 체제에서 별도의 지역 단위 교육과정이 엄격한 지침 수준으로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위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장학 지도나 학교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교육과정과 학교 경영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교육청에서는 교육 기관 간, 학교와 기업체 간, 교육 기관과 연구 기관 간의 협력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 핀란드의 고등학교 교육 개관

고등학교에는 3년제의 일반계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lukio) 과정과 2~3년제의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 과정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2005년 현재 중학교 마치고 곧바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95.1%이다. 약 5%는 학업 중단 상태이다. 2006년 현황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55%, 전문계 고등학교에 37%가 진학을 하고 3%의 학생들은 10학년에서 재이수하고 있다.

2008년까지 고등학교 진학률을 96%로 끌어올리는 것이 핀란드의 교육 목표 중 하나이다. 교육 행정가들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지 않고, 전문계를 통한 직업 교육과 현직을 거친 후 직업전문대학으로 진학을 권장하는 편이다. 종합 학교 이후 일반고나 실업고 중 어느 쪽을 진학해도 대학 진학의 길은 열려 있다. 실업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졸업하면 직업 교육을 통해 사회 활동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qualification)을 취득하지만, 일반고를 졸업하게 되면 아무런 생활 및 직업 대책이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셈이다.

핀란드의 고등학생들 중에 전업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44%로 상대적으로 적다.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성인 전용 고등학교도 있으며, 직업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더 많다.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은 양질의 전인 교육을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역할은 기초 교육의 연속에 있어 광범위하고 전반적인(all-round) 학습을 제공하는 한편, 상급 학교에서의 학습에 요구되는

충분한 능력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자기 존중감을 기르는 것을 강조한다.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 가치를 생명과 인간의 권리 존중에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교육적 이상은 진리의 추구, 인간 존중과 정의, 개방된 민주주의, 평등과 복지 촉진에 있고, 교육 활동은 적극적인 상호 작용과 정직에 바탕을 둔 협동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고등학교 교육은 더 많은 융통성을 갖게 하고,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 교육 정책의 초점은 교육 내용 쇄신에 있다고 한다.

3.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졸업자들은 누구나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지원하지만 학생들은 보통 거주지 고등학교에 다닌다. 학생은 5지망까지 지원하는데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 종합학교의 성적이 중위 정도의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있다. 학교 간에 합격 점수 격차는 크지 않지만 헬싱키 시내 진학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10점 만점에 평균 7점 이상은 되어야 하고, 9.5점이 넘어야 입학하는 초일류 고등학교도 있다. 일반 고등학교는 저마다 특색이 있어 학생들은 무용, 음악, 영화, 미술, 연극, 스포츠, 그림, 환경, 수학, IB 등 특성화된 과정을 고려하여 선택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03년 개정하여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핵심은 지역 단위 교육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수준의 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교육법과 국가 교육과정 핵심의 큰 틀을 통해 교육의 기본 제도와 원칙만을 결정하며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교육 제공자로서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들

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과 학교에서는 그 지역적 여건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산업체 또는 연구 기관, 대학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개방된 교육 체계를 운영한다.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기초 교육 틀 안에서 단위학교는 초·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10%, 고학년은 20%, 고등학교는 25% 정도의 교육과정상의 자율권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과 심화 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교과목과 단위 수, 1단위=38시간)

교과목		필수 과목과 단위 수		심화 과목과 단위 수	
	국어(핀란드 어, 스웨덴 어)	□ 언어, 텍스트, 상호 작용/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문학적 장치와 해석/텍스트와 영향/텍스트, 문체, 문맥/언어, 문학, 정체성	6	□ 심화 단계 구두 의사소통 능력/심화 단계 텍스트 해독 및 생산 능력/쓰기와 현대 문화	3
외국어	- A언어		6		2
	- B언어		5		2
	- 외국어(B2, B3)		-		6
수학	- 기본 과정	□ 식과 방정식/기하/수학적 모형I/수학적 해석/통계와 확률/수학적 모형 II	6	□ 상업수학/수학적 모형 III	2
	- 고급 과정	□ 함수와 방정식/다항함수/기하학/해석기하학/벡터/확률과 통계/도함수/무리함수와 로그함수/삼각함수와 수열/적분	10	□ 정수론과 논리학/수와 대수적 방법/고등 미적분학	3
자연과학	- 생물	□ <생물>유기체의 세계/세포와 유전	2	□ <생물>환경과 생태계/인간 생물학/생물 공학	3
	- 지리		2		2
	- 물리		1		7
	- 화학		1		4
	종교/윤리		3		2
	철학		1		3
	심리학		1		4
	역사	□ 인간, 환경, 문화/유럽인/국제관계/핀란드 역사의 전환점	4	□ 선사 시대-자치 시대 핀란드/문화와의 만남	2
	사회	□ 정치와 사회/경제학	2	□ 시민과 법/유럽주의와 유럽연합	2
예체능	- 체육	□ <체육>능력과 조건/개인 운동과 단체 운동 □ <미술>나, 시각 이미지와 문화/환경, 장소, 공간	(5)	□ <체육>레크리에이션 활동/단체 훈련/건강 운동 □ <미술>미디어와 시각 메시지/예술의 이미지에서 개인의 이미지로/현대 미술 워크숍	3
	- 음악		2		3
	- 미술		1-2 1-2		3
	보건	□ 건강의 기초	1	□ 청소년, 건강, 일상생활/건강과 연구	1
	진학과 진로 교육	□ 교육, 일, 미래	1	□ 학업, 직업 생활, 직업 선택	1
		□ 필수 과목	47-51	□ 심화 과목(최소)	10
		□ 응용 과목(최소 제한 없음.)			
		□ 총 계	75		

별도의 영재 교육 없이도
핀란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무학년 과목 선택 제도 덕분이다.
학생들은 수준별, 단계별로 개설된 교과목을
자신의 적성, 능력, 진로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이수하게 하므로,
학습 집단은 등질적이어서 학급 규모에 덜 구애받는다.

각 과목의 심화 과목은 중요한 주제나 영역별로 나누어 개설되어 학생이 선택적으로 영역별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 및 학교 내 교육과정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여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와 수준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개별 학습 계획에 따라 다양한 심화 강좌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과나 문과의 계열 구분을 넘어서 개별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졸업 이수 단위인 75 단위 중 2/3에 해당하는 47~51 단위는 필수로 지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필수 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수학과 과학 과목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간표는 매 학기마다 특정 과목에 초점을 두는 방식 단기 집중 이수로 짜인다. 1년을 7주 5분기(period)나 6주 6분기의 세분화된 분기제에 따라 적은 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학습량을 재는 것은 38시간을 하나의 단위(course)로 하는 단위제이다. 선택한 심화 과목 최소 10단위를 포함하여 75단위를 이수하고 졸업자 격시험을 치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고등학교 졸업장에는 교과, 각 교과별 이수 과정 수, 서술 또는 점수로 나타난 교과 성적(예: 매우 우수, 9), 교과 이수 여부(예: 이수, 미이수) 등이 기록된다. 국가가 지정한 필수 과목 이외에 지역 및 학교 단위에 과목

개설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및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시험으로 강좌를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른 교육 기관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된다. 전체 단위의 3분의 1은 선택이다. 1단위 38시간 안에는 4시간의 시험이 포함된다. 이수 단위는 학습 방식, 즉 다양한 토론과 발표를 위주로 한 수업 방식,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작성한 작문을 제출해야 하는 평가 방식 등 개별적인 학습 준비를 요구하는 핀란드식 수업과 연관되어 있다.

과목마다 단위 수는 다르지만 대체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15개의 과목을 공부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이수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단계에서 치르는 대입 자격시험 과목과 밀접히 관련된다. 각 교과는 수준에 따라 계열적으로 학년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준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기 다른 과목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개인별 학습 계획(individual study plan 또는 course tray)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성취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개인별 학습 계획은 학년이 끝날 무렵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성취도나 흥미에 따라 다음 해 재조정될 수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 교사 등이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강영혜, 2008b).

2000년부터 채택된 고등학교 무학년제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따라 고등학교

이수 기간(3년)을 1년 정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일부 과목 또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개별 학습(independent study)을 통해 이수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학년제이므로 학생의 개별 학습 계획에 따라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과정을 이수한다.

별도의 영재 교육 없이도 핀란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무학년 과목 선택 제도 덕분이다. 학생들은 수준별, 단계별로 개설된 교과목을 자신의 적성, 능력, 진로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이수하게 하므로, 학습 집단은 등질적이어서 학급 규모에 덜 구애받는다. 고등학교에서 수업당(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20명 이하의 수업이 대부분이며, 특정 선택 과목이나 심화형 수업에는 학생 수가 더 작아 보다 심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강영혜, 2008b).

일반 고등학교는 선발된 집단이므로 부진아 지도나 교과 이외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교과별 학습 목표, 핵심 내용, 성취 기준 등을 학년 군별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진학과 진로 지도 과목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학업, 대학 입학 시험, 진로와 취업 계획 등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인 문제를 다룬다. 교과별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통합 교과와 범교과 주제 교육을 강조하고, 학교 행사나 학교 문화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교과에서 범 교과 주제가 교과의 핵심 내용의 항목에 들어가 있다. 교사는 자신의 교과에 대한 평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졸업 후 직업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전체의 40% 정도 된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취업하거나 ‘폴리테크’(기능대학, 직업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고등학교의 경우 실기와 연계된 2~3년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며, 직업고등학교에는 7개의 섹터에 52개의 자격증을 겨냥한 112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자격증은 6개월의 현장 실습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것으로, 자격증 발급의 주관을 학교에서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기술 자격(증)을 부여받으려면 총 120 단위(1 단위는 학교 수업과 자율 학습까지 포함해 40 시간을 소요)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 중 90 단위는 직업 과목에서 취득한다. 나머지 30 단위 중 20 단위는 일반 기본과목, 10 단위는 자유 선택 학습으로 구성된다.

직종에 상관없이 기술 자격(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훈련을 받는 실습을 통해 20단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 평가에는 그동안 기술을 얼마나 잘 연마했는지 실제 상황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실질적인 과제물 제출이 포함된다. 평가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기본 교육과정 내에 한하지만 기술 시범은 기업과 협력하여 고안된다.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이 직업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산업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서이다. 학생들의 일반고 선호는 점증하지만 어려운 입시전형을 통해 걸러 내는 식으로, 정책적으로 실업고등학교를 장려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를 거친 대학 졸업자가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지만, 직업계도 간호, 유아는 소득이 낮은 편이지만 전기, 배관 등은 소득이 높다. 간혹, 학비가 있는 개방 대학을 다니고 수학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 자체 시험을 거치지 않고 편입하기도 한다. 최근 전기공 배관공 등 고숙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학교를 졸업하면 핀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어디서든 취업할 수 있다. EU에서 추진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 덕분에 핀란드 학교에서 탄 자격증이 EU 어디서든 통용된다. 직업 교육 분야의 중도 탈락자 비율이 2003년 10.2%, 2004년 9.4%, 2005년 9.5% 감소 추세에 있다.

핀란드 학교에서 경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다.
 다만 학생들 간의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 완화될 뿐이고,
 굳이 특정 대학을 가지 않고도 직업이나 사회 보장과 복지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에
 경쟁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직업 전문대학의 평균 수학 연수는 5년이고, 25세에 졸업한다. 직업 전문학교 졸업 후 기술인 자격증(polytechnic degree)은 대학 학사 학위와 같은 것으로 인정된다. 직업 교육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코펜하겐 프로세스(Copenhagen process)를 따르고 있다. 또, 성인 교육을 대단히 중시하여, 매년 약 100만 명의 핀란드 국민이 1000여 개가 넘는 교육 기관이나 대학교, 및 종합 기술 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5.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과 대학 진학

고등학교에서 75단위를 마치고 정부가 시행하는 전국 단위 졸업 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다. 시험은 필수 과목 4개와 선택 과목 1개 이상으로, 국어(핀란드 어, 스웨덴 어, 사미 어), 제2 공용어(핀란드 스웨덴 어), 외국어, 수학, 일반 교과(general studies, 자연과학과 인문학)인데, 졸업 시험에서 4과목 이상에서 합격해야 대학이나 직업 기술대학교로 진학할 자격을 얻는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서술식으로 매우 어렵다고 한다. 시험은 봄과 가을 두 차례 있고, 학생들은 한 번에 전 과목을 치를 수도 있지만 18개월 동안 3번에 나누어 칠 수도 있다. 신입생 수에 대비해 졸업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

체로 80%가 넘는다. 결국, 10명 중 8~9명은 정식 졸업을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수료를 하는 셈이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성인식과 같이 매우 중요한 행사로 여겨진다.

졸업 시험을 치르고 그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04년 32.5%, 2005년 36.5%, 2006년 37.9%이다. 경쟁률이 높은 법대, 의대, 공대 등 일부 대학은 재수, 3수생 입학자가 적지 않다. 대학 입학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시험 성적과 대학 자체 출제 시험을 합치거나 둘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 헬싱키 대학의 의과나 건축학과 등 일부 인기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인생의 목표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다.

좋은 대학 입학은 매우 힘들다. 대학 자체 시험은 대학에서 매년 조금씩 다른 범위와 내용을 매년 12월 성탄절 전후로 수험서로 발간하여 안내한다. 예컨대, 2008년 의대 지원자는 생물학(세포, 인체)을 기본으로 하며, 화학 등을 선택으로 추가 공부해야 한다. 의대 진학용 대학 제공 책자는 Galenos(630쪽), 화학(190쪽)의 수험서를 사서 공부하였다. 법대 지원자는 재산법(273쪽), 정부론(284쪽), 형법(159쪽) 책을 사서 공부하고 준비하였다. 교원대 시험의 1차 시험은 저명 교육 에세이를 14편을 모아 엮은 책으로 120 문항의 선택형 검사이고, 그 후에 심층 면접, 집단 토론 등을 거친다. 수험서의 저자는 대학 교수이고, 수험생들은 이 책을 사서 공부해서 시험을 친다.


대학 자체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선에 있지만 대학 전공 공부의 예비 과정의 성격이 강하다. 핀란드에서도 헬싱키 대학이 최고의 종합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lukio) 학생들은 헬싱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적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핀란드 학교에서 경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다. 다만 학생들 간의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 완화될 뿐이고, 굳이 특정 대학을 가지 않고도 직업이나 사회 보장과 복지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에 경쟁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6. 핀란드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질 관리가 되지 않아 대졸자들은 적절한 직업을 얻지 못한다.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는 대학 졸업 시까지 변변한 성취에 대한 질 관리나 선발을 엄정하게 거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핀란드는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게 만들어 두었다.

실질적인 직업 기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실제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 무상 교육, 기회 균등, 교육 복지,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진로 지도 강조, 국제적 수준의 높은 교육 호환성, 무학년제, 학습 집단의 크기 축소, 경쟁 아닌 협동 학습, 분기별 집중 이수, 실험 실기 실습 등 교과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 분기를 이용한 효율성 높은 학교 시간 운영, 분기당 및 일당 이수 과목 수의 적정화, 수행 평가, 고등학교 졸업 시험, 대입의 질 관리, 우수한 교원 확보, 자율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사들의 높은 윤리적 책무성,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연 1회 교원 평가, 관료적 장학제의 폐지, 평가 정보에 기초한 자율 장학 활동, 4년 주기의 장기 교육 정책, 엄청난 교육 투자, 일반 정책과 교육 정책의 통합,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적

역할 강화, 교육 제도의 효율성 강조 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영혜(2007). 『핀란드의 공교육 개혁과 종합 학교 운영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 보고 자료 OR 2007-3-8호
- 강영혜(2008a). 『석차 사교육 영재 교육 없는 교육 강국 핀란드』. 고희일 편저(2008), 세계의 수월성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49-97.
- 강영혜(2008b). 『교육 강국 핀란드의 성공 비결』. 교과서연구.
- 홍후조(2008). 『교육을 하려거든 핀란드처럼』. 교육과학기술부, [꿈나래 21] 8월호 웹진.
- 홍후조 김대석(2008). 「학기당 일당 이수 과목 수 적정화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 방안 - 'The more the better' or 'Less is more.'」한국교육과정학회 월례 학술 발표회 논문, (2008. 9. 27., 서울대학교).
- 후쿠다 세이지(나성은, 고영태 역)(2008). 『핀란드 교육의 성공: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으로』, 북스힐.
- NBE(2007). *Finnish schools in 2006*.



요구 충돌의 교과서 개발 현장

글 이학범 (다락원 국장)

☞ 어떻게(how)에 집착하는 교육과정

이번 영어와 수학 교육과정은 차수 변경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 또는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한 수시 교육과정 개편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전 교과 일괄 개정의 관행을 깨고 주요 기초 도구 교과인 영어와 수학을 우선 개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교과서 검정 출원을 받아 검정에 착수하였다. 이를 이어 받아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정을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현재 교과서 선정 작업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와 수학 교육이 새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네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현장에서 20여 년을 함께 하면서 교육과정은 왜 '무엇(what)'은 소홀히 하고, '어떻게(how)'에만 매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새 교육과정이 고시될 때마다 이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 외국어 교과와 같은 소재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소재나 재료에 대해 '무엇(what)'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언어 기능에 대한 접근 방법론이라고 할 '어떻게(how)'는 교과서 저작자나 교수·학습 현장에 맡기는 것을 기대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나의 기대는 빗나갔다. '어떻게'에 집중하고 무언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이다. 도대체 중학교 1학년 영어가 무엇일까? 고등학교 1학년 영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교육과정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광복 이후 교수 요목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소재 교과 교육과정이 재료나 소재에 대해 각급 학년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몰라도 제6차 교육과정기 이후부터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이란 명분하에 소재나 재료에 해당하는 무언은 소홀히 하거나 포괄적으로 또는 추상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언어 기능 접근 방법론이라고 할 '어떻게'를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 고시 기준인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만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어떻게는 교과서 저작자, 그리고 교수·학습 현장에 완전히 맡길 수는 없는 것일까? '어떻게'에 집착하는 교육과정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학문적 유행이나 지배력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언어 기능별 접근 방식이나 포맷, 즉 전개 형식은 비슷하고 내용은 중구난방인 이런 교과서를 우리 교육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없는 것일까? 서구식 외국어 교과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 제도와 유사점이 가장 큰 일본 정도의, '무엇도' 다양하고 '어떻게'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이 공존하는 그런 교과서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 요구 충돌의 교과서 개발 현장

교과서 개발 현장은 요구 충돌의 현장이다. 국가 고시



국가 고시 기준인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만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어떻게는 교과서 저작자,
그리고 교수 학습 현장에 완전히 맡길 수는 없는 것일까?
‘어떻게’에 집착하는 교육과정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전개 형식은 비슷하고 내용은 중구난방인 이런 교과서를
우리 교육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없는 것일까?



기준과 일선 교육 현장의 요구, 집필진과 편집진, 집필진과 집필진, 편집진과 편집진, 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와 편집진 등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크고 작은 충돌 과정을 거치면서 교과서가 탄생하게 된다. 교과서 개발 현장에서의 이런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 판단이 요구될 때는 국가 고시 기준, 교수·학습 현장의 요구, 학문적 주장이나 판단을 따르게 된다.

집필진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 고시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학 교수 집필진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학문적 주장에 따라 독창적으로 집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편집진은 교육과정을 들어 학문적 주장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종종 마찰이 생긴다. 일선 학교 교사 집필진들은 주로 교수·학습 현장의 요구를 이야기하지만, 이 요구들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은 미미하다. 그래서인지 일선 학교 교사 집필진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홀대받는다는 피해 의식이 있어 보인다.

대학 교수 집필진은 교육과정이 자신의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선 학교 교사 집필진은 교수·학습 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교육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부터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을 허용하는 교육과정, 일선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진이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교과서 형태로 제시되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 입

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교수·학습 현장의 현실적 요구 사이의 접점은 없는 것일까? 교과서의 현재 모습이 옳은 길이라면 국가에서 관장하는 각종 입시 관련 시험 유형을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각종 활동과 같은 형식으로 바꿔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역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와 같은 시험이 옳은 길이라면 교과서가 그에 대한 적합성 높여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 국가 고시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교육과정의 틀이라는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집필진이 평생 연구하여 정립한 학문적 성과를 교과서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후세 교육을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편집진에서는 집필진의 학문적 주장을 마지막에 두려고 하고, 집필진은 이것을 최우선시하려는 경향이 크다. 편집진은 집필진의 평생 연구 결과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집필진은 학문적 주장에 제한을 가하려드는 편집진의 요구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집필진과 편집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집필진과 편집자는 교과서 개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하게 된다. 집필진은 편집진의 원고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집필진 고유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고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제5차 교육과정 때까지만 해도 편집진 가운데는 해당 교과 비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어 지금은 편집자도 거의 모두 대학에 해당 교과를 전공한 사람들이다. 물론, 편집자들이 대학 교

수나 현장 교사들만큼 학문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편집자들은 전업으로 교과서에 대한 고민하는 반면에, 집필진은 연구나 강의를 본업으로 하면서 짬을 내어 부업으로 교과서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과서 편집자도 교과서에 관한 한 대학 교수나 일선 학교 교사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건방지고 오만한 것일까?

☐ 진화하는 교과서 검정 시스템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뀐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교과서 검정 시스템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적격과 부적격만이 있었던 검정 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재검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부적격 교과서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유서를 검정 출원자에게 보내는 제도까지 생겼다. 학년별 순차 검정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진화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재검정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 결과에 대한 의의 제기 신청 절차가 도입되었다. 또, 검정에서 합격한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절차를 두어 검정 당국과 교과서 개발자 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형적 시스템으로만 본다면 이제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을 정도의 완결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되어 있거나 추상적 개념으로 진술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검정 기준으로 검정 심사 위원들이 학문적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검정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교과서 개발 현장에서는 수정 보완 요구서를 받은 합격 교과서에 대해서 불합격 사유서를 쓸 수도 있고, 불합격 교과서의 불합격 사유서를 수정 보완 요구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회자된다.

이번 영어와 수학 교과서 검정에서 중학교의 경우 영어 25종, 수학 27종,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 17종, 수학 18종의 교과서를 대거 합격시켜 거의 모든 교과서가 합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합격한 교과서가 불합격한 교과서에 비해 우수하다고 하기에는 망설여진다. 더구나 불합격한 교과서를 검정 출원한 측에서 합격한 교과서의 수정 보완 요구서를 본다면 결과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교과서 편제에 있어 없는 것을 신설하거나 있는 것을 없애거나 기술의 방향을 바꾸라는 수정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번에 새로 생긴 수정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검정 심의 위원들이 단기간에 많은 교과서를 심의하는 한계로 인하여 필자의 의도를 왜곡한 수정 보완 요구가 사라지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걸쳐 교과서가 탄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합격 교과서를 검정 출원한 측에서는 더욱 억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검정 심의 위원들은 대학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 본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디자이너, 원어민, 국어 교사 및 기타 기초 심사들이 보조 요원들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사 위원들은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의 요구와 검정 기준 등에 대한 약간의 연수를 거쳐 심의에 임할 것이다. 단기간의 연수를 통해 평생 자신이 추구해 온 학문적 주장을 접고 국가가 제시한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바꾸어 검정 심의를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누가 검정 심의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검정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이다.

검정 심의 위원들의 자정 노력과 검정 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정 위원들은 자신의 평소 학문적 주장이나 가치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로지 국가에서 고시한 기준만을 가지고 검정 심의를 하는 자세를 스스로 확립하면 될 것이고, 검정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검정 심의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다. 개별 검정 심의 위원들의 심의 의견은 심의 의견으로 끝나고 이것이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통일된 심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만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검정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검정 심의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다.
개별 검정 심의 위원들의 심의 의견은 심의 의견으로 끝나고
이것이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통일된 심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만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무한 경쟁으로 내달는 교과서 시장

각 학교가 그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하였는지를 생각해 본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시장을 독점한 일부 발행사들의 교과서로 획일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영어의 경우, 중학교 25종 50책, 고등학교 17종 34책, 수학의 경우, 중학교 27종 54책, 고등학교 18종 36책이다. 이 방대한 수량의 교과서를 교사들은 방학 중에 쉬지도 못하고 꼼꼼하게 따져 보고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선정한 결과 일부 발행사들의 교과서로 선정이 집중되었다. 영어의 경우, 중학교 상위 3개 발행사가 약 75%, 고등학교는 상위 3개사 71%, 수학의 경우는, 중학교 상위 4개사 약 70%, 고등학교 상위 4개사 64%를 석권하였다. 이 결과를 존중하고 검허하게 받아들인다.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교과서 선정 대가로 오가는 채택비 부조리 등 이런 이야기는 기자들이 꾸며 낸 이야기라고 믿는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동 생산하여 학교에 선정 자료로 제공한 교과서와 각 교과서별 공동 홍보 안내 자료 이외에 일체의 자료 제공 행위를 불공정 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합격 취소 또는 발행 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선정 현장에서는 이들 불공정 경쟁 행위로 지정된 자료는 받아 즉시 폐기하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이런 불공정 경쟁 행위로 자료를 제공한 발행사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을 것으로 믿는다.

교과서 시장을 석권한 발행사들은 자사의 이익 독점을 위하여 교과서 공영성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한국검정 교과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검정 출원 당시 의무로 규정하여 동의서까지 받았던 공동 생산 공동 공급 의무 조항을 교과서 선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인 지난 8월, 2010년 검정 출원 공고와 함께 갑작스럽게 삭제하여 교과서 시장을 독점하게 된 발행사들의 (사)한국검정 교과서 해체 시도를 지원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교과서는 공영성을 잃고 소수 선정 교과서들은 소멸되고 대형 발행사들의 전유물이 되는 무한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일부 대형 발행사들이 교과서 시장을 독점, 거대 자본을 활용하여 '무엇(what)'도 다양하고, '어떻게(how)'도 다양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교육 현장에 선택을 폭을 넓혀 주길 기대할 뿐이다. **연**



교과서가 내게 준 또 다른 가르침

글 김광욱 ((주)천재교육 중등개발본부 차장)

☐ 교과서 만드는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교과서 작업을 처음 해 보는 직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특근으로 지쳐 간혹 나에게 건네는 말이다. 교과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남달라 보인 모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경조사와 같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교과서 개발에 할애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별로 지친 기색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건네는 말인 것 같다.

참고서와 같은 학습물을 개발하다 보면 거의 5년 주기로 찾아오는 교과서 시즌, 나에게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내공을 쌓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교육과정의 개정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는 참고서 개편 또는 신간 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개정 교육과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는 늘 생각해 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그 적용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개발할 책 수도 늘어났다. 특히, 영어와 수학 교과목의 경우는 교과서와 활동책(익힘책),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므로 그 부담감이 매우 컸다. 또, 검정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각 출판사들은 이번 교과서 개발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집필진과 편집진 확보에 출판사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수 4명과 교사 3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나를 비롯하여 대리 1명, 편집

경력이 1~2년 정도인 사원 2명, 모두 4명으로 편집진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 우리가 앞으로 자장면을 몇 그릇이나 더 먹으면 교과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불쑥 한 교수님이 저녁 식사 도중 하신 말씀이다. 식사 시간도 아껴서 검토를 하다 보니 늘 배달시켜서 먹는 것이 중국 음식이다. 나중에 어느 교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먹어 왔던 자장면 그릇 수보다 교과서 작업 기간 동안 먹었던 자장면 그릇 수가 더 많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사실, 우리 팀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 중순까지 매주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저자 회의를 진행하였고, 7, 8월 여름 방학 동안에는 저자 집중 회의를 주 3~4회 진행하였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팀이 다른 어떤 팀들보다도 많은 회의를 하게 된 까닭은 팀원 중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필자나 편집자가 교과서 작업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제6, 7차 교과서 작업 경험은 있었지만 팀을 맡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모든 분들이 성실하고 성품이 무난하여 사람으로 인한 작업에 큰 곤란을 겪은 경우는 없었다. 간혹 일정대로 일이 잘 안 풀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저자 회의와 편집자 회의를 통하여 학습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

고반으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매주 정례화 되어 있는 저자 회의와 편집자 회의를 통하여 교과서에 대한 시각을 한층 키워 나갔다. 이들 회의를 통하여 교과서와 익힘책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따라 건본 원고를 집필하였다. 건본 원고를 검토하는 회의 과정에서 교과서와 익힘책 모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고, 수정 모형에 따라 건본 원고를 집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수차례 반복되었다.

☐ 익힘책은 괴물이다

작년 2월초 익힘책 모형을 한창 논의하던 중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그랬다. 괴물 같았다. 적어도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제시하는 익힘책 모형은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괴력을 가진 괴물이었다. 교과서의 경우는 제7차 교과서나 외국의 교과서와 같이 그 모형이 다양하여 모형을 개발할 때 참고할 것이 많았다. 반면에 익힘책의 경우는 참고할 만한 모형이 없었다. 더군다나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제시하는 익힘책의 성격과 초등학교 익힘책의 성격은 비슷하기는 하나 참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외국의 경우도 스킬 능력을 키우는 워크북 형태는 있어도 편찬상의 유의점이 제시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형이 없는 상황에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을 근거로 각자의 머릿속에서 상상한 모습은 괴물과 흡사하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발 초기에 익힘책의 방향을 잡는 데 예상 외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리 팀은 익힘책을 크게 수준별 학습 자료와 문제로 구성하였다. 수준별 학습 자료는 상, 중, 하로 각각 구성하려 하였으나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제시한 내용을 매 단원마다 상중하로 구성하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하수준은 이전 학년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상수준은 단원의 개념, 원리의 상이한 설명이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준별 학습 자료의 내용 선정도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고 현장 교사의 판단에 무게를 두었다. 물론, 원고 검토 과정에서 수차례

의 개고 과정이 뒤따랐다.

한편, 문제 편은 다양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중·하위권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단원 체제보다는 소단원 체제를 선택하였다. 문항 구성도 기본기 학습에 충실하게 하여 반복 학습과 심화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력 신장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하수준, 즉 특별 보충 과정에 있는 학습자를 위한 문제 유형 개발이었다. 하수준은 학습 결손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져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적다. 그동안 하수준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익힘책에 반영할 만큼 다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단 저자 각자가 생각하는 하수준의 문제 유형을 집필하게 하고 4차례에 걸친 익힘책 저자 윤독 과정에서 그 유형을 다듬어 나갔다.

또, 상수준의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를 익힘책에 반영하여 학습 성취도를 한층 더 높여야 했다. 그런데 익힘책에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를 반영할 때에는 문제만 제공해도 되는 경우와, 문제와 함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연습 문제 문항 사이에 필요에 따라 학습 내용을 넣어 주어야만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어색했다. 연습 문제 문항 사이에 필요에 따라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넣어 준 교과서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걱정이 되었다. 우리도 어색한데 심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다 검정 심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불합격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결론은 도달하였으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구입한 독일 교과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한 익힘책 모형이 독일 교과서에 그대로 있지 않은가? 하수준의 다양한 문제 유형도, 연습 문제 문항 사이에 필요에 따라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넣은 것도,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보았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지금에야 눈에 띄는 것일

까? 그때서야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문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은 관련 문항 뒤로 넣어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정짓고 집필에 속도를 내었다.

☐ 이려다 제출 못하는 것 아니야?

회의를 많이 한 탓인가? 아니면 익힘책 문제 유형 개발에 시간을 너무 할애한 탓인가? 예상보다 익힘책 수행과제 원고 입수율이 30%도 채 안 되었다. 제출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매주 토,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 주말에 원고 집필이 어렵고 주중에 집필을 해야 하니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편집에서도 편집자 윤독 회의와 저자 회의 참석으로 업무가 많이 지연되었다. 회의를 줄이고 집필에 집중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저자들과 편집자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위기였다. 결국 주중에 회의를 강화하여 수행과제 원고를 타고하자고 제안하였고, 교수님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로 나오셔서 자료를 찾고 집필하여 겨우 탈고를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익힘책 수행과제와 읽을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다. 나와 직원들은 심사본 준비를 위해 제출 한 달 전부터 매일 새벽 2~3시까지 야근하여 제출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 겨우 심사본과 집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올해 3월에 적격 통지를 받고 나는 지금 고등 수학 심화 교과서를 준비 중이다. 심사본 제출이 오늘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남았다. 작년과는 달리 기획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책 수가 10권이나 되다 보니 관리하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작년 한 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집필진과 편집진 덕으로 올해는 상당히 수월하다. 요즘에는 교수님들은 주 5일은 회사에 나와서 인쇄본을 검토해 주신다. 또, 현장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지도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중에는 집에서, 주말에는 회사에 나와서 교과서와 익힘책 문제 풀이를 해 주신다. 우리 직원들은 매일 심야 업무 택시를 이용하면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결국 교과서는 지금까지의 수학 및 수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표현하는 형식 중의 하나인 것 같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교과서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교수와 이를 책으로 구현해내는 편집자 등과 충분한 사회적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보통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이 발표되면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는데 그 개발 기간이 고작 1년이다. 수학 및 수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소통과 합의 과정을 교과서로 구현하는 데 1년은 너무 짧다.

또, 과거에는 교과서가 대학 교수 중심으로 집필되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특히,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익힘책 개발에서는 현장 교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왜냐하면, 수준별 수업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직접 지도하는 사람이 다른 아닌 현장 교사들이고 이들의 경험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서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참여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서나 학습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이 또 오늘의 현실이다. 저자 회의를 통하여 느낀 것이지만 수학 학습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이 교과서 개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교과서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 반영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과서 개발은 집필진과 편집자 모두 자기와 자신의 가정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 후손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근 3년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익힘책 개발에 함께 해 온 집필진과 편집진에게 그동안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지면을 통하여 전하고 싶다. **연**

어머니처럼 보고픈 어릴 적 교과서

글 김국빈(대구남도초등학교 교장)



요즘 신문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교과서 문제이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교과서 논쟁이 수없이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에 의하여 31곳 56개가 좌편향 시각으로 기술된 모 출판사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가 시장 점유율에서 56% 이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 침식 작용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교육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편수팀을 교체하여 ‘자학 사관’을 바로잡을 ‘궁지의 사관’이 필요하며 새 검 인정 지침 만들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념적 편향적 시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는 바뀌야 한다며, 좌편향을 중립적 입장에서 중간 단계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이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가 너무 우파적 시각을 고집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가 또 바뀌어야 한다며 학자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방법론까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또, 교과서는 교육 백년대계와 관련된 만큼 수정의 내용이나 방법, 완급 조절 같은 것을 신중히 생각해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만큼 교과서는 우리 생활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를 다녀 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다시피 교과서는, 특히 초 중등학교 교과서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교육 자료이다. 요즘에는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고 ‘교과서로’ 가르치자고 하면서 다른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 관습에 의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었고, 그래야만 한 권을 다 배웠다며 책거리를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따라서, 바른 역사와 고증에 의하여 심혈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교과서가 참으로 중요하다.

60이 넘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몇 학년 자연(요즘의 ‘과학’) 교과서 어디쯤, 어떤 그림과 함께, 어떤 실험을 하는지 지금도 떠오르며, 음악 교과서 어디쯤, 어떤 그림에 어떤 노래가 실려 있는지 아직도 기억난다.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교과서가 먼저 떠오르면서 선생님이 풍금(오르간) 반주를 열심히 하시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요즘에 불리는 동요의 노랫말이 그때와 다르게 들릴 때는 귀에 자꾸만 거슬리고 어색한 느낌이 든다.

그뿐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던 ‘백설부, 산 정무한, 기미독립선언서’ 등은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지금도 몇 구절씩 떠오른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교과서가 바르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중 예 체능 관련 교과서는 그야말로 완벽해야 한다. 중등학교에서도 학습은 하지만 입시가 인문, 자연, 예능 계열로 갈라지므로 초등학교일 때의 예 체능 학습이 유일무이한 학습 기회로 자리 잡게 되어 그 기억들이 평생의 생활 도구가 되고 만다.

만약, 잘못된 시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배웠다면 청 장년이 되어서도 그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사람 사는 모습 또한 윤택해지고 모든 것들이 풍부한 세상이다. 과거보다 더 살기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인정은 메말라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필자가 초등학교(‘국민학교’에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추억을 생각할 수 있어 정겹다.)에 다닐 때다. 국어, 셈본, 사생, 자연 등 그때 교과서 이름도 입에 익어 있고 또한 교과서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아꼈는지 모른다.

학년이나 학기가 바뀔 때면 새 책을 주문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책 이름 옆에는 책값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 기억으로 30원에서 60~70원 정도였다고 기억된다. 그때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새로운 책을 산다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문서 빈칸에 가위표(×)를 하여 주문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절반 정도나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들로부터 현책을 무상으로 물려받거나 새 책 값의 3분의 1 정도만 주고 사기도 하였다. 나도 그 후자에 속한다.

주문 무렵에 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그야말로 ‘형, 나중에 책 다 배우면 내게 줘. 알았지?’ 하고 미리 주문(?)을 한다. 때를 놓치거

나 잊어버렸다가는 현책도 살 수 없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하면 또 다른 선배를 찾아 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책을 받으면 새 책 못지않게 아끼는 마음으로 돌가루 종이(시멘트나 비료를 담는 포대로 질기고 두꺼운 종이)로 정성스럽게 싸서 그 종이 위에 책 이름과 학년, 반, 이름을 연필이나 철필로 쓴다. 현책을 보다 보면 낙서를 해 놓은 것이 더러 있는데 그 내용이 학습과 관련되는 것들이어서 공부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새 책을 먼저 보던 그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여 그다지 낙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려받은 책을 조심스럽게 보고, 또 한번 물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정하게 다룬다. 그리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예쁜 그림이 있는 비닐 표지를 씌웠다. 그러나 그런 표지를 사는 사람보다 달력이나 다른 종이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더 흔했다.

또, 공부할 내용도 교과서가 아니면 별로 없었다. 모든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자세하게 한 권에 담은 ‘전과 새 공부’도 훨씬 후에야 나온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읽고 문제를 풀고 하였다. 그때는 암송 대회라고 하여 교과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줄줄 외워 잘 암송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영어 교과서 암송대회가 있어 그때 외운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배우던 책을 잘 보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책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 주면 좋은 이야기거리와 그때의 삶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물려받아 공부하던 교과서를 나도 후배들에게 물려준 탓으로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자식들이 배우던 교과서 몇 권은 지금도 책장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손자들이 좀 크면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장 구석이나 창고나 복도 구석에서 주인 없는 책을 가끔 만난다. 책이 없어져

도, 또 잃어버려도 금방 새것으로 사 주다 보니 아까운 줄을 모른다. 표지를 입히는 경우도 드물다. 지질이 워낙 좋아 웬만해서는 잘 찢어지지도 않는다.

또, 곁들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과서 정책이다. 교과서 정책은 참으로 중요하다.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가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작금의 독도 관련 언론 기사를 본다. 어느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탄할 일이다. 7월 24일자 어느 인터넷 신문에 실린 내용 중 일부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일부 교과서에 독도 사진 한 장만 달랑 있을 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독도가 우리 땅이며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도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과서 정책을 기초부터 단단히 세우는 건축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는 뭐니뭐니 해도 교과서이다. 우리나라 학생 모두가 성장해서도 생활에 이용되는 것이 교과서,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들이다.


교과서는 좋은 재질로 만들어 적어도 3년 정도는 물려주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몇 년 전에 외국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웠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올해 사용한 교과서를 다음 학년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속표지에 사용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까지 쓸 수 있도록 칸이 여러 개 있어 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교과서 다루는 버릇까지 가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되는 교과서가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이 일회용 교과서로 취급을 한다. 잃

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쉽게 사도록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가 책마다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교과서만큼은 애지중지 아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교과서마저도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e-Learning 2.0이니 스쿨 2.0이니 하면서 시 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되어 사이버 학습이 가능케 되는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일선 학교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교과서 박물관이 각 시 도마다 있으면 좋겠고, 여의치 않는다면 중앙과 지방 두어 군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도 어렵다면 교과서 재단 같은 기관 안에 보관하고 있는 교과서를 전자 도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코흘리개 적 어린 시절에 배우던 교과서가, 그리운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사무치게 보고픈 것은 무슨 까닭일까?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6)

홍범준

-(주)좋은책신사고 대표-



이번 호에서 찾아간 기업은 (주) 좋은책신사고입니다. (주)좋은책신사고는 <신사고>라는 핵심 브랜드로 친숙한 교육 출판 전문 기업입니다. 매년 25% 이상의 고도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교육 콘텐츠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주)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 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좋은책신사고의 고등 참고서는 매출 및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면에서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좋은책신사고의 간략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좋은책신사고는 젊은이들에게 그들만의 꿈을 찾아 주고,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며, 자유를 호흡하게 하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1990년 ‘도서출판 학진평’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신사고>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200종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 학습 참고서를 제작, 유통하고 있으며 ‘나를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끊임 없는 연구 개발을 통하여 10대들의 감성과 호호하는 제품,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 제품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 <신사고>는 알찬 내용과 참신한 디자인의 참고서로 소비자들에게 ‘새롭고(新) 믿을 수(信) 있다’는 평을 받으며 수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영어 교과서 검정 출원에 100% 합격하여 교과서 분야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좋은책어린이, 신사고아카데미, 신사고하이테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순득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매년 2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주)좋은책신사고는 고도성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교육 출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② <썸 수학>은 중 고등학생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참고서라고 들었습니다. (주) 좋은책신사고의 대표적인 제품에는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에서는 200종이 넘는 참고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썸 수학>만큼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참고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품을 들자면 언어 영역 교재인 <오감도>와 내신과 수능 고득

점을 위한 신개념 학습서인 <우공비>, 최상위권을 위한 교재인 <특작>, 수능 유형별 다제 문제집인 <수능 다큐>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좋은책신사고의 단행본 사업부 좋은책어린이의 제품에도 <요술 연필 페니>, <꺼병이 억수> 등 인기 제품이 여러 권 있습니다.

③ 여러 계열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열사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신지요?

좋은책어린이에서는 창작 동화, 그림책, 지식 정보 책, 학습 만화 등 재미와 감동은 물론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와 가치가 담겨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좋은책어린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책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가치입니다.

신사고아카데미는 아이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내고 창의적 수학 능력을 개발하여 살아 있는 수학의 진수를 만끽하고 수학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학원 사업과 학원 전문 교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사고하이테크는 CTP, CTF를 통해 각종 도서와 상업 인쇄물을 전문적으로 출력하는 회사입니다. PDF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통해 출력 전 PDF를 통한 완벽한 교정으로 제작 시간의 단축과 편리함,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 출판을 통한 인쇄판 출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출판에 필요한 최고의 장비를 구축하여 디자인, 출력, 인쇄와 관련된 신사고만의 노하우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④ (주)좋은책신사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사를 성공으로 이끈 주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을 철저한 고객 중심

적 사고와 일등 제품을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 임직원의 일에 대한 열정에 있다고 봅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 체제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꼼꼼한 시장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고객의 요구를 고객보다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제품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 제품을 만들려는 전 임직원의 이러한 노력은 참신한 디자인과 쓰임새 있는 구성, 탄탄한 내용으로 신사고만의 독특한 참고서를 탄생시켰습니다. 또, 좋은 참고서를 만들려는 임직원의 열정과 고집, 끈기와 자부심은 우리 회사를 성장시킨 또 다른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이번에 교과서 사업에 진출하였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교과서에 대한 요구도 귀담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책신사고가 교과서를 만든다면 교사에게는 가르치기 쉬운, 그리고 학생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확신을 교과서 개발 및 검정 합격으로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⑥ 이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학습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준별 수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든지, 교과서에 구성했던 보충 심화 과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습량을 적정화하였다는 점 등은 교육 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부터 새롭게 개발



교과서는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는
그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된 수학 익힘책과 영어 학습 활동책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㉞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본질을 충실히 살린 교과서겠지요. 교과서의 본질은 모든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 인터뷰하면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말에 교과서의 본질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는 그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㉟ (주)좋은책신사고의 교과서가 갖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좋은책신사고는 2008년 검정에서 중학교 영어와 수학,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개발하여 100% 합격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앞서 말씀드린 교과서의 본질을 충실히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목의 성격을 살린 교과서다운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영어 교과서는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현하여 수업 시간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의 노출 빈도를 높여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 단원의 주제가 음악, 미술, 수학, 과학 등 타 교과목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서는 개념의 엄밀성을 추구하면서, 수학 교과목에서 교사와 학생이 공통으로 느끼는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과서 검정 합격을 위한 형식적인 구성과 치장을 지양하여 수업에서 짐이 되었던 내용들을 과감히 없애고, 실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의 고려하여 지도,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㊱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습니까?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모두 말하려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검정 출원 하는 출판사 간의 명확한 입장 이해가 없고, 의사소통 창구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속한 문제 공유 및 해

결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창구가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김정 교과서 심사는 출판사로부터 완성본을 제출 받아 진행하는데, 이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의 낭비가 막대합니다. 국정 교과서 개발 과정과 같이 집필 계획서와 한두 과 정도의 견본만 제출하는 1차 심사 과정을 거쳐 완성본을 제출하는 2차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개발적인 면에서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자는 현업을 가지고 집필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집중도나 시간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개발 인력과 마찬가지로 집필 인력도 교과서 개발 기간에는 교과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차차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 향후 사업 계획 또는 사업 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초·중·고 교육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을 목표로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중등 쎌>와 <우공비>의 매출 향상을 통한 중등 시장 확대에 매진하고 있으며, 초등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 끝으로 (주)좋은책신사고가 미래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는 창의, 합리,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 사고는 조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적인 조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창의적 사고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면에서의 진보를 꾀하기를 기대합니다. 합리적 사고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에 기준이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며 믿음과 배려로 소통하고 강한 책임감으로 윤리를 실천하는 정신을 통하여 우리는 고객과 파트너 사의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에너지입니다. 즐거움은 목표를 향한 도약에 추진력이 되는 가치입니다. 즐거운 일터를 지향함으로써 회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즐거움은 우리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의 행복 실현 추구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답 / 김종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조사연구부장)

초등부 금상

교과서는 선생님

글 조민희(여수한려초등학교 5학년)

장마철이다. 날마다 비가 내려 교실 안은 습기로 가득 차서 눅눅하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5학년 2반 교실은 조용하기만 하다. 그런데 사물함 근처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이렇게 퀘퀘한 냄새가 나는 거야? 아, 숨을 못 쉬겠어. 누가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야?”

사물함 속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교과서들이 웅성거린다. 모두들 냄새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고 코를 막는다. 그 때 맨 앞줄에 있던 강다혜의 사물함 속에서 국어 교과서가 슬그머니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애들아, 미안해. 나도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단다. 었그제 내 주인 다혜가 우유를 먹다가 내 몸에 쏟아 버렸어. 냄새보다도 몸이 엉켜서 꼼짝도 못하겠어.”

그 말을 들은 교과서들이 여기저기서 동정하는 목소리로 다혜의 국어 교과서를 위로했다.

“그랬었구나. 네가 그렇게 고통 받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냄새가 난다고 모두 불평을 했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신희재의 사물함에서 음악 교과서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우유를 쏟은 것도 괴롭겠지만 나를 던지고 밟는 것은 더 괴로워! 우리 주인 희재는 괜히 나한테 화풀이를 한단 말 이야.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찌그러졌어.”

그러자 뒤편 서승현의 사물함에서 수학 교과서가 소리쳤다.

“어이구, 말도 마. 나는 우리 주인 승현이가 나를 찢지 뭐니? 이 고통은 밟히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도대체 왜 날 찢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오늘은 연필심으로 쿡쿡 찌러 대기까지 하더구나.”

사물함에 있던 교과서들은 너도나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인은 내 몸에 낙서를 해!”

“우리 주인은 날 걷어차.”

“우리 주인은 날 접어.”

“우리 주인은 날 돌돌 말아서 다른 아이들을 때려.”

저마다 고통을 호소하느라 시끌벅적하다. 그때 조민희의 사물함 속 사회 교과서가 말했다.

“우리 주인 민희는 멀쩡한 내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한다니까. 나의 소중한 이름 사회가 있는데 말이야. 아 니 글씨 날 생선회라고 바꾸잖아. 내가 생선이니? 내 이름을 바꾸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국어 교과서가 대꾸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책가방 속에서 교과서가 자리를 잃었다.
 무겁다고, 귀찮다고 사물함에 넣어 두고 다닌다.
 내 교과서 역시 한 번도 우리 집 구경을 못했다.
 가방 속에서 쫓아 내고 낙서를 하고 친구와 장난치면서 던지기도 하고,
 표지부터 엉뚱한 글자로 바뀌 엉터리 이름표를 달아줘도 오래 참아 주고
 오직 내 손길만을 기다려온 교과서, 이제 교과서에게 제 자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내 이름은 어떻게! 어떻게 복어라고 바꿀 수 있니? 복어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나봐.”

그러자 여태까지 듣고만 있던 선생님 책상에 놓여 있던 교사용 교과서가 말했다.

“모두들 좀 참으렴. 너희들이 조그만 더 참고 너희 주인들을 더욱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끌어 주면 너희 주인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너희들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이 말을 모두 들은 교과서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주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더욱 사랑해 줄 거라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 선생님께서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함부로 대한 교과서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빈 교실에서 저마다 주인들에게 불평을 하고 있을 교과서를 떠올리니 저절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책가방 속에서 교과서가 자리를 잃었다. 무겁다고, 귀찮다고 사물함에 넣어 두고 다닌다. 내 교과서 역시 한 번도 우리 집 구경을 못했다. 가방 속에서 쫓아 내고 낙서를 하고 친구와 장난치면서 던지기도 하고, 표지부터 엉뚱한 글자로 바뀌 엉터리 이름표를 달아줘도 오래 참아 주고 오직 내 손길만을 기다려온 교과서, 이제 교과서에게 제 자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학습지에게, 학원 교재에게 비좁은 자리를 내어 주고 사물함 속에서 어두운 밤을 지내는 교과서에게 내 방 구경도 시켜 주어야겠다. 우리 아버지를 가르쳤고, 어머니를, 언니를 가르친 것도 교과서였다. 나의 푸대접을 묵묵히 참으며 나를 가르쳐 온 지식의 창고, 교과서는 나의 선생님이다. 

중등부 금상

열정과 냉정 사이

글 신우준(파주탄현중학교 3학년)

엄마는 여전히 외할머니와 전쟁 중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엄마는 외할머니를 보며 계속 화를 내지만 외할머니는 언제나 옆집 개가 짖는다는 표정으로 먼 하늘만 쳐다보신다. 태평한 외할머니의 표정에 엄마의 화는 더욱 불을 뿜는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애초에 승패가 정해져 있다. 외할머니의 완승!

나와 동생의 방학 때, 그러니까 일 년에 며칠 동안만 보면서도 두 여인의 싸움은 언제나 그대로다. 싸움의 양상도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싸움의 내용은 언제나 필요 없는 물건 좀 버리고 살라는 엄마와, 가당치도 없다는 외할머니의 ‘열정과 냉정 사이’이다.

외할머니는 경북 영양에서 4남 1녀를 낳아 키우셨고, 아직도 홀로 그 곳을 지키고 계신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들이 함께 살자고 하셔도 한사코 싫으시단다. 그 때 외할머니의 고정 레퍼토리는 “내가 여길 지키고 있어야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이지.”였다. 냉정한 여인의 이러한 고정 레퍼토리에 맞선 열정의 여인은 저 것들 다 가지고 가지 못해서 안가는 거라고 못 박는다. 하기가 외할머니 댁, 바깥채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얇은뱅이책상, 누렇게 바랜 사진 안의 뽀뽀머리 소년과 목이 흰히 들어나 보이는 단발머리를 한 나보다 어린 엄마, 내가 가끔씩 즐겨보는 ‘새소년’이나 ‘어깨동무’, 그리고 이십 년도 더 지난 과거를 보여주는 바랜 신문지로 찢 책들…….

작년 어느 여름 저녁이었다. 식구들 모두가 마당 평상에서 수박을 먹던 날이었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드디어 또 예의 ‘열정과 냉정 사이’를 시작하셨다.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무렵 내가 불쑥 외할머니께 여쭙봤다.

“외할머니, 저 방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외할머니는 다 외삼촌하고 네 엄마 거라고 하셨다. 외삼촌하고 네 엄마 어렸을 때는 집이 꼭 찬 것 같았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텅 빈 것 같아 자식 삼아 둔 거라고 하셨다. 엄마는 이상하게 외할머니 얘기도 수박만 드시고 계셨다. 외할머니는 누워 있는 동생에게 부채질을 해 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네 엄마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기 며칠 전부터 신문지를 모았더라. 교과서 받는 날이면 정성스레 책을 싸고는 뜨지 말라고 엉덩이로 깔고 앉기까지 했지.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는 책을 네 막내 외삼촌이 급하다고 신문지를 벗기고 화장실에 간 일이 있었지. 하이고, 그 날 사변난 줄 알았다. 무슨 가스나가 저리 사나올꼬. 아무리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지 오빠한테 덤비는데……. 내가 네 엄마 생각만 하면 저승 가서 시부모 볼 낮이 없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얘기를 신호로 드디어 열정의 여인, 엄마가 참전을 선언하셨다. 그런데 별 쓸 데 없는 얘기를 다한다며 화를 내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다시 밤하늘만 쳐다보셨다.

며칠 후, 나는 외할머니의 신기한 보물 창고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 어머니가 앉아서 어떤 책을 보고 계셨다. 다른 책들과 달리 누런 신문지가 없는 책.

“아! 그거! 외삼촌하고 싸운 그 책?”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의 모습은 아득하다. 그냥 아련한 옛 추억에 잠겨 있는 듯하였다. 내가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넘기는데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 실려 있었다. “우와, 엄마도 이 시 배웠어?”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에게 한 번 외워 보라고 하니까 엄마는 “나 보기가 역겨워…….” 하시며 아련히 떨리는, 그러나 막힘이 없이 시를 외셨다. 그런데 그 시를 외는 엄마는 벽에 걸려있는 누렇게 바랜 사진 속의 단발머리 소녀와 닮았다. 엄마는 언제나 엄마인 줄 알았다. 늘 마흔 어디쯤인 엄마……. 하지만 그제야 나는 실감했다. 엄마에게도 수줍은 소녀의 시절이 있었고, 꿈으로 설레던 십대의 언제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와 난 다 같은 십 대 소년 소녀로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다. 거기에는 윤동주의 ‘서시’가 있었고, 민태원의 ‘청춘 예찬’이 있었다. 그렇게 엄마의 열 몇 살과 나의 열 몇 살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나보고 이것 좀 읽어 보라며 너무 좋다며 교과서를 내 앞으로 내미셨다. 피천득의 ‘인연’과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짧은 글이었지만 긴 여운이 있었다. “좋지?” 하고 묻는 엄마의 물음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통지표! 엄마의 통지표였다. 획 날아 오는 엄마의 손길을 피하며 확인한 엄마의 성적은……. “엄마, 양, 가 맞으면 사람도 아니라며? 이건 뭐야?” 아련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날 저녁에도 다시 열정과 냉정 사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여름 며칠이 지나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외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끝내고 차에 앉았다. ‘탁!’ 하고 문이 닫히고 창 밖에는 쓸쓸한 표정의 외할머니가 서 계신다. 핸들을 잡은 엄마의 얼굴도 요 며칠처럼 생기 있지 않았다. 이별은 언제나 힘들다. 나도 창문을 내려 외할머니께 인사한다. 그리고 창문을 올리다 차 문 옆에 달려있는 수납함에 못 보던 책이 한 권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등학교 국어’, 신문이 벗겨져 있던 그 교과서. 요즘은 흔하디흔한 게 교과서일 것이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그리고 나에게 교과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교과서는 외할머니에게 자식이 되어 주었고, 엄마에게 추억을 그리고 아들인 나에게 앞 세대와 과거를 공유하게 하는 신비의 문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 공기처럼 흔하여 소중함을 몰랐지만 정작은 사랑해야 할 일이다. 연

고등부 금상

청춘의 피는 끓는다

글 석지혜(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우리 집에는 3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 남매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에 국어 교사이셨는데 아버지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렇다 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필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흰하게 다 외우고 계신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교과서에 있는 글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책 속에 있는 문장을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술술 말씀하신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덕분인지 나는 국어 과목을 가장 좋아한다.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찜통더위를 피해 인근에 있는 수변공원을 찾았다. 분수대의 물줄기는 음악 소리의 강악에 맞춰서 높낮이가 조절되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광장에서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등 수많은 인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공원 안에 있는 슈퍼마켓 주변에는 유난히 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시골의 5일 장에 출현한 약 장수를 구경하러 모였던 사람들 같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사람들의 틈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 힙합 댄스를 추고 있었다. 언제 오셨는지 내 옆의 좁은 틈 사이를 밀치고 들어오신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때다. 참 좋을 때지. 젊다는 것이 이래서 좋은 것이야.”
하셨다.

“청춘의 끓는 피의 힘이 바로 이것이지. 주체할 수 없는 젊음을 표출하고 있구나.”
하시며 아버지는 아예 땅바닥에 자리까지 잡고 앉으셨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가족은 힙합 댄스 구경에 흠뻑 빠져 들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훌러 섯덩어리라도 녹일 듯이 극에 달했던 뜨거운 열기는 서서히 식어 갔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하나둘씩 빠져나갔다. 힙합 댄스를 끝낸 학생들이 짐을 챙겨 떠난 뒤에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청춘을 예찬하고 계셨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시냇물이 흘러내리듯 시원스럽게 들려오는 귀에 익은 문장에 나도 모르게 합류를 하여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청춘의 피 끓는 정열과 튼튼한 육체를 인류 사회에 공헌하여야 한다고 늘 말씀하신다.

우리 집의 거실에는 TV가 없다. TV가 놓일 자리에는 할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빗바텐 교과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다. 그 책 속에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필이 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만 가게 된다. 그럴 때마다 허심탄화하게 나누는 할아버지와 대화는 흥미진진하여 나이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자와 할아버지는 세대차이 때문에 아예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한 원인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화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나이가 많고 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태원의 '청춘예찬'을 읽어 내려가면 거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인 나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칠순을 넘긴 백발의 할아버지도,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장년의 아버지도 민태원의 '청춘예찬'을 접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생기고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셨다. 주체할 수 없이 세차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강렬하게 웅숭음치는 것만 같았다.

거실에서 3대가 모이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필의 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화두로 등장한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한 소절을 하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뒷 문장을 이어간다. 하나의 작품이 끝나면 할아버지의 부연 설명이 뒤를 따르고, 이때쯤이면 어머니가 간식을 내어 오신다. 즐거운 저녁 한 때를 보내고 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청소년이 된 듯 한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 청소년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수필은 칠순이 지난 할아버지의 가슴에 여전히 18살 소년의 느낌으로 남아 있다고 하셨다. 시험에 나온다고 하여 무작정 외웠던 교과서의 글들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입가에 맴돌아 그 시절을 회상할 수가 있어서 무척 행복해하신다.

교과서 속에 실려 있는 수필을 통해서 우리 가족 3대는 더욱 더 끈끈한 가족애로서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다. 이처럼 수필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이어서 많은 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서 더욱 정감이 간다. 다가오는 기말 시험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수필들이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청춘을 노래하며 항상 젊게 살아갈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이를 잊고 청소년처럼 젊음과 패기로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수필이 매개체가 되어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여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한 덕택이 아닌가 싶다.

나는 지금 청소년기이다. 이 길을 먼저 가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인생의 긴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다. 이런 말이 나에게 아직 실감나지는 않지만 가슴 깊이 새겨두고 후회 없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넘기고 있는 이 교과서의 책장을 옛날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넘겼다고 생각을 하니, 왠지 친근감이 들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 먼 훗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지금처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필을 접할 수 있는 행복이 있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일반부 금상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서 세상 보기

글 문수연(서울남부초등학교 교사)

가방에 얹은 무게만큼 발걸음은 신바람이 난다. 아직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의 자아처럼 한 장 한 장에 서린 긴장감을 손가락으로 들추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무엇보다도 반듯반듯한 글씨와 다양한 그림 숲 사이에 간간히 마련된 나의 참여를 기다리는 빈 공간을 확인하는 눈은 행복한 미소가 가득 서리곤 한다.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 새 교과서는 그렇게 늘 나의 온 감각을 만족시켰다.

유년 시절의 설렘, 왜 그렇게도 교과서는 작은 난쟁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가장 큰 매력은 나만의 메모와 어린이다운 비뚤어진 밀줄을 허락하는 유일한 책이었다는 데 있다. 유독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부모님의 서재에서 책을 꺼내 보면서 적극적인 필자의 권리를 행사하길 즐겼다. 그러나 형형색색의 펜으로 밀줄을 긋고 가슴을 두드리는 달콤한 단어를 동그란 원으로 가두는 짜릿함의 결과는 항상 꾸중과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독서광에 메모광이었던 나의 손길을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교과서는 빈틈을 허락하는 정겨운 친구였다.

누구나 처음에는 같은 책으로 시작하지만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학습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자기만의 교과서를 갖게 된다. 그 중 가장 애착이 갔던 교과서는 선생님과 대화의 오고 갔던 통로의 흔적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새기고 있는 것들이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쓴 부분에 선생님의 칭찬이나 조언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어찌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교과서는 선생님과 나의 만남을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다. 그 분은 담임선생님이 아니라서 도덕 시간에만 교실에 들어오셨다. 일주일 동안 그 한 시간의 수업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생활의 길잡이를 활용한 소통의 추억이 그 분과 나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느낌과 실천한 것을 적는 공간이 유독 많았기에 나를 가장 많이 닮았던 교과서, 선생님의 다정한 코멘트를 확인하는 즐거움은 도덕 공부를 즐겁게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마음에 드는 글귀에 밀줄을 긋고 적극적인 독자의 권리를 넘어서 나만의 교과서를 완성하는 필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수업 시간, 한 학기가 끝나고 책장을 넘겨보면 선생님의 다정한 미소와 토닥임이 그득하고 친구들의 생글생글한 얼굴과 웃음소리가 눈에 선하다. 모든 정보를 주고 단순히 받아들이도록 달혀 있는 성전이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한 답과 개인적인 느낌을 담는 공간을 열어 놓은 교과서는 최고의 학습 도우미였다.

책을 읽고 메모하는 즐거움과 선생님과 대화하는 추억을 안겨 주는 교과서는 세상을 알고 싶었던 어린 소녀의 욕구 또한 불평 없이 채워 주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만큼 알고 싶은 것도 많았던 나의 호기심을 가장 충실하게 만족 시킨 도우미는 백과사전도 인터넷도 아니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잘 다듬어진 글과 적절한 그림, 사진의 안내는 친절한 가르침을 주었고, 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된 교과서 속의 질문 하나 하나는 난쟁이의 욕심을

채워 주고도 남았다.

때로는 얇은 궁금증을 깊이 있는 학문의 탐구로 이끌어 주고 새로운 생각 거리를 안겨 주었던 교과서,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앉으면 세상을 더욱 구석구석 바라볼 수 있었다. 나의 역사 그 자체, 12년간의 공부 짝꿍이었던 교과서는 다정하면서도 친절한 거인이었다.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조사 과제를 해결할 때도 미리 교과서 내용을 잘 읽고 요약한 후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보충해서 찾으면 이해가 쉽고 조사 보고서도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었다. 남들처럼 학원에서 나누어 주는 요점 정리, 요약한 자료를 보지 않고도 곧잘 좋은 성적을 받았던 비결도 교과서 내용을 동네 지리 보듯 훤히 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의 나의 손에는 교과서가 들려 있다. 어린 학생일 때와 달리 달라진 점은 먼저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일 때보다 더 부지런히 수업 시간을 준비하며 한 장 한 장 읽어보고 구석구석 보충해서 이야기할 설명을 적어 놓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교과서의 장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구성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던져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교육적 철학과 고뇌의 흔적이 느껴진다. 그림이나 사진, 말풍선으로 제시되는 질문과 안내 문구는 예전보다 더욱 다양한 학습 욕구를 지닌 이 시대의 어린 학습자들을 흥미롭게 자극하고 예화나 글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듯 요즘 세대의 관심사를 담고 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첫 달은 교과서의 구성과 기능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 계획을 세워본다. 각 교과서 처음에 안내된 ‘교과서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어요.’를 읽고 밑줄을 그어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생각할까? 나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하여 선생님이 얻었던 즐거움과 도움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어느 때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책임감이 든다.

책은 거의 읽지 않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치고 클릭 한 번에 얻은 정보를 단순하게 습득해 버리는 이 시대의 학습자들. 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정교하게 잘 구성된 정보의 거미줄을 안내하기 위하여 오늘날도 욕심 많은 교사는 능동적인 독자가 되길 학생들에게 강요한다. 미리 교과서를 읽어 오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중간 중간에 있는 질문과 안내 글도 놓치지 않고 짚어 준다.

6학년 국어 교육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찾는 방법에 관한 학습 내용이 있다. 이때 인터넷, 백과사전,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이야기 하면서 교과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해당 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사진, 그림과 글을 실어 놓은 교과서가 가장 좋은 정보원이라고 말하면서 사회 교과서에 실린 역사적 사건 한 가지를 조사하고 교과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아무 생각 없이 출력해온 대다수의 과제는 아무리 읽어도 아리송했지만, 교과서 몇 쪽을 읽고 난 후에는 내용 이해는 물론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탐구할 거리도 생겼다.

시대가 흐르면서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교과서도 그 모습을 바꾸었다.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만큼 열린 질문 거리를 던지고 있는 교과서를 손에 들고 꿈 많은 나의 난쟁이들에게 외친다. 더욱 능동적으로 교과서를 읽고 자신만의 생각을 담은 교과서를 완성해 나가고, 다정한 짝꿍이자 거인인 교과서를 발판 삼아 세상을 더욱 더 멀리 바라보고 이해하기를. 이미 훌쩍 자란 난쟁이는 제 자신이 그랬듯이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한다.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서 바라보는 세상은 구석구석 더 이해하기 쉽고 또 가치 있는 탐구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에. 

인생을 바꾸는 신기루(蜃氣樓)

교과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지식의 보고(寶庫)요, 인생의 반려자(伴侶者)이다. 그러나 개인마다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다가오는 감동에 차이가 있다. 이를 수필로 옮기면 그 기법에 따라 글의 생명력은 더욱 달라진다. 따라서 교과서 관련 수필은 그 만큼 글을 쓰는 기법에 가치가 좌우된다. 이번의 심사는 이러한 창의적 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에는 수필 응모 편수가 다소 증가하고, 분야별로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다. 반면 작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꽤 있어, 글의 질과 수준에서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교과서와의 평이한 경험을 독창적인 기법으로 글의 매력에 침잠하게 하는 작품도 있지만, 나만의 소중한 체험을 안이한 필치나 단조로운 전개로 마음을 파고드는 감흥을 자아내지 못하게 하는 글도 꽤나 있었다.

응모작에는 초 중 고등 모두 글감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뚜렷하였다. 교과서를 훼손 낙서하여 생긴 일,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겪은 친구와의 갈등, 이에서 더욱 돈독해진 우정을 다룬 작품과, 교과서로 공부하여 성적이 오르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교과서의 효용성과 소중함을 강조한 글이 많았다. 특히, 모집 분야별(학교 급별)로 등장인물이나 전개 방식이 유사하여 우수 작품의 등위(等位)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아주 재미난 현상도 나타났다.

초등부 <교과서는 선생님>은 사물함 속의 여러 교과서, 즉 우유 냄새가 나는 ‘국어’, 던져지고 밟힌 ‘음악’, 찢기고 연필심으로 찢린 ‘수학’, 생선회로 이름이 바뀐 ‘사회’ 등을 의인화하여 교과서의 애환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다. <나는 교과서입니다>에서도 의인화 기법과 1인칭 서술로 교과서 전반을 분석하여, 주인한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중등부 <열정과 냉정 사이>는 할머니, 어머니, 아들 사이를 응집하는 누렇게 바랜 국어 교과서가, ‘할머니에겐 자식, 엄마에겐 추억, 아들에겐 앞 세대와 과거를 공유하게 하는 신비의 문’이라 하여 교과서의 소중함을 추창하였다. 그런데 <천의 얼굴을 가진 보물>에서도 할아버지, 어머니, 딸이 국어 교과서를 매개로 어떻게 서로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 인물 관계나 교과서의 역할이 비슷하다.

고등부 <청춘의 피는 끓는다>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3대가 ‘청춘예찬’을 연상하며 이어

지는 생활의 에피소드를 가족애와 연결시켜, 교과서가 세대를 초월하여 제공하는 가치를 확연히 하였다. <성장통>에서도 교과서와 관련한 어머니 사랑을 진솔하게 정리하여 교과서가 ‘바다와 같았던 사춘기에 등대’가 된 사연을 박진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처럼 우수 작품은 평범한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에서 탈피하여 글에 생명력을 창의적으로 불어 넣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교과서가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도구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되는 반려자요, 인생의 이정표라는 가치가 수필적 형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교과서가 하나의 의미 있는 생명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여 작품으로서의 격조를 높인 것이다.

특히, 일반부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체험을 다양한 기법으로 작품성을 한층 높여 작품의 우열을 가르기가 매우 힘들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서 세상보기>는 교과서를 ‘거인’, 자신을 ‘난쟁이’라 가정하고 학생, 교사의 입장에서 달리 경험한 교과서의 의미를 대비시켰고, <할머니의 보물 단지>는 책을 애지중지하시는 할머니에게 칠순생신 선물로 자기와 할머니의 이름을 나란히 쓴 교과서를 선물하겠다는 발상이 특이하다.

교과서의 단점까지도 지적하고, 교과서에 낙서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역발상 등 평범한 사실을 특이한 사상(事狀)으로 전환한 기법으로 필진성(逼真性)이 돋보인 글도 있다. 두 개의 에피소드를 이중 구조로 대비하거나, 시간의 교차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진한 감동을 유발하는 전개 방법도 눈에 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좋고 아쉬운 점을 제시하고, 교과서에 대한 비평적 시각으로 앞으로는 가정에서 교과서 없이 컴퓨터로 공부하게 된다는 미래의 학습 형태를 예언하거나, 독도 문제, 역사 왜곡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현실성을 부각한 글도 인상적이다.

기발한 끝맺음으로 작품성을 배가하는 기법에도 주목이 간다. 모파상의 소설적 기발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초등부 <너무나도 소중한 네 친구들>은 대화체의 암시적 끝맺음으로 여운을 주며 교과서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고등부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는 운동선수로 교과서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교과서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그리면서, 글의 마지막에 “아버지, 새 교과서 받았어요.”라는 대사로 극적 효과를 노렸다.


이번 응모 작품에는 매우 특이하게도 교과서의 가치나 역할을 암시하는 글의 제목이 많았다. 즉,



교과서를 표상하고자 하는 ‘관념’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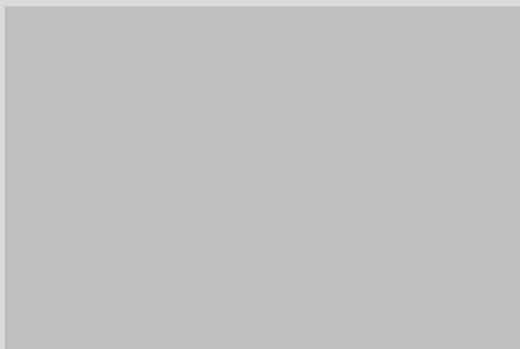
이들 제목은 ‘친구’, ‘선생님’ 등 교실이라는 공간에서의 친숙한 사람으로, ‘이정표’, ‘등불’, ‘디딤돌’, ‘오작교’, ‘보물’ 등 인생의 지남차(指南車)나 값진 물건으로, ‘거인’, ‘동반자’, ‘얄미운 녀석’, ‘멘토’ 등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행인으로, ‘일기장’, ‘연습장’, ‘잡지’, ‘베스트셀러’, ‘유산’ 등 인생의 기록물로 그 의미나 가치를 분류할 수 있다. 교과서의 의미나 가치가 이상에서 제시된 표상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언어’는 교과서가 가지는 최상의 이미지들임에는 틀림없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문단 나누기, 들여쓰기, 문장 부호 사용 등 원고지 사용법과 맞춤법이 틀린 작품도 꽤나 된다. 글의 생명력이 기본적인 형식의 구비에 기반을 둔다고 하면, 이에 대한 교육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과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신기루다. 이젠, 우리의 교육도 교과서에 의한, 교과서를 위한, 교과서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와 관련한 글쓰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현재의 교육 문제 해결도 이에서 출발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2008년 10월 1일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심사위원장 박 삼 서



연구재단 소식

※ 임원 동정

○...김홍섭 이사 퇴임

- 우리 연구재단의 당연직 임원 중 김홍섭 이사(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는 2008년 9월 1일자로 타 부서로 전출하심에 따라 퇴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사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심은석 이사 취임

-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에 부임한 심은석 국장은 2008년 9월 1일자로 우리 연구재단 당연직 이사에 취임 하였습니다.

※ 2008학년도 2학기 교과용도서 수증

-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2008학년도 2학기 교과용 도서를 각 발행사로부터 기증 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 48권, 금성출판사 20권, 두산 84권, 지학사 10권입니다. 기증에 협조해 주신 발행사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교과서 출판교실' 운영

-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발행사 편집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과서 출판교실'을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교과서 출판교실'을 다음과 같이 1회 운영하였습니다.

- 교육과정명: 특강, 교과서 출판 기획 및 편집론, 교과서 문장론, 저작권법, 교과서 편집디자인론
- 운영 단위: 3일(19시간)
- 운영 시기(참가 인원) : 10. 8~10(19명)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맡아 주신 여러 감사님과 '교과서 출판교실'에 참가해 주신 발행사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입상자 시상

- ...우리 연구재단은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를 실시, 2008년 9월 18일 입상자를 발표하고 2008년 10월 6일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은 금상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상장과 부상을, 은상, 동상, 장려상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상장과 부상을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엔컬처그룹, 두산, 천재교육, 지학사에서 단행본 등 부상품을 협찬해 주셔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장 박삼서 교장선생님, 심사위원 송인발, 박남화, 윤광원 선생님들과 후원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검정교과서, 교학사,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두산, 지학사, 천재교육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 과 서 별 구 입 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수학교	대한교과서(주)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75-120
	중학교	○ 국어 1,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학년, 국사,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해양 과학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농업계 일부	지학사	(02)330-5302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어1, 확률과 통계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어2, 생활과 과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 농업계, 상업계 일부	교학사	(02)707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서 울 지 역 직 매 장

- (주)두산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 02-3670-5106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23-4682~3
-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여 분 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 |
|---------|---------------------------------|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0 연구지 담당자 앞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ktrf.re.kr/ 이동

HOME CONTACT US SITEMA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재단소개 교과서연구 교과서정보관 출판교실 알림마당 참여마당

교과서정보관 이용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0 2 . 2 6 5 1 . 1 9 5 0

● 전철_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_603, 5012, 6614, 6624, 6640번

|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9,076	6,587	35,663
일반 자료	2,839	-	2,839
계	31,915	6,587	38,50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